

이 정 윤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한국적 부모자녀관계와  
대학생의 자아분아의 관계  
: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의 매개효과

2012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김 지 원

한국적 부모자녀관계와  
대학생의 자아분아의 관계  
: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의 매개효과

이 정 윤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김 지 원

# 인 준 서

김지원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채규민   
심사위원 이옥경   
심사위원 이정훈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연구에서는 한국적 부모자녀관계와 자녀의 자아분화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 두 변인을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매개 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를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 지방소재 전문대 이상의 대학생 남녀 472명으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척도는 부자유친성척도(Parent-Adolescent Affective Bonding Scale), 자아분화 척도(Self-differentiation Scale),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이며, 연구가설 검증을 위해 상관분석 및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처리 및 분석은 SPSS 18.0과 IBM SPSS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 19.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적 부모자녀관계와 자아분화, 부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은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한국적 부모자녀관계와 자아분화, 부모자녀 문제형 의사소통과는 부적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부모자녀관계의 하위요인인 일체감과 헌신성은 자아분화의 하위요인인 정서단절, 가족퇴행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족투사와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한국적 부모자녀관계와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관계에서는 부모자녀관계 하위요인인 일체감과 헌신성이 부모와의 개방형 의사소통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리고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자아분화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개방형 의사소통은 자아분화의 하위요인 중 가족투사, 정서단절, 가족퇴행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문제형 의사소통과는 자아통합을 제외한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가족투사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정서단절과 가족퇴행과는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한국적 부모자녀관계 측정 변인인 부자유친성과 부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은 자아분화의 하위요인 중 가족퇴행 및 정서적 단절 요인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한국적 부모자녀관계와 자아분화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완전매개모델이 부분매개모델에 비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자녀관계 하위요인인 일체감과 헌신성은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매개로 하여 자아분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주요어 : 한국적 부모자녀관계, 부자유친성정, 자아분화, 부모자녀 의사소  
통

# 목 차

## 논문개요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II. 이론적 배경

- 1. 부모자녀관계
  - 1) 부모자녀관계의 중요성 ..... 10
  - 2) 한국적 부모자녀관계 특성(관계주의와 부자유친성정) ..... 15
- 2. 자아분화
  - 1) 자아분화의 정의와 구성개념 ..... 20
  - 2) 가족체계유형과 자아분화 ..... 25
  - 3) 한국적 부모자녀관계와 자아분화 ..... 26
- 3. 부모자녀 의사소통
  - 1)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유형 ..... 29
  - 2) 부모자녀관계와 부모자녀 의사소통 ..... 33
  - 3)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자아분화 ..... 36

### III. 연구 문제 및 가설

- 1. 연구 설계 ..... 38

### IV.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 39
- 2. 측정 도구

1) 부자유친성정 척도 .....	41
2) 자아분화 척도 .....	43
3)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 .....	45
3. 자료의 분석 .....	47

**V. 연구 결과**

1. 주요변인의 기술 통계치 및 상관관계 .....	48
2. 부자유친성정과 자아분화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의 매개모형 검증 .....	52
1) 모형 검증 .....	53
2) 부-자녀 의사소통 매개모형검증 .....	54
3) 모-자녀 의사소통 매개모형검증 .....	58

**VI. 논의 및 제언**

1. 결과 논의 .....	62
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	66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 표 목 차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	39
<표 2> 부자유친성정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	43
<표 3> 자아분화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	45
<표 4> 부모자녀 의사소통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	46
<표 5> 측정변인간 상관 및 기술통계 .....	51
<표 6>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	55
<표 7> 경쟁 모형(완전매개모형)의 경로 검증 결과 .....	56
<표 8> 변인들간의 직접, 간접 효과 .....	58
<표 9> 연구모형과 경쟁 모형의 적합도 .....	58
<표 10> 경쟁 모형(완전매개모형)의 경로 검증 결과 .....	59
<표 11> 변인들간의 직접, 간접 효과 .....	61

## 그림 목 차

<그림 1> 한국적 부모자녀관계, 의사소통, 자아분화의 관계모형 .....	38
<그림 2> 연구모형(부분매개 모형) .....	53
<그림 3> 경쟁모형(완전매개 모형) .....	53
<그림 4> 부-자녀 경쟁모형(완전매개 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	57
<그림 5> 모-자녀 경쟁모형(완전매개 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	60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기능적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건강한 가족관계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부모자녀관계는 가족관계의 중심축이자 한 개인이 경험하는 최초의 인간관계라 할 수 있다. 자녀들은 생애초기부터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신체적, 심리적인 성장 발달과 동시에 심리, 사회적 적응양식을 습득함으로써 전 생애의 발달과업을 이루어 나간다. 따라서 부모와의 상호관계에서 자녀가 경험하는 질적 측면은 성격형성이나 지적발달, 대인관계 및 사회적 관계에서의 성공유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재은, 1974; Bronfenbrenner & Mahoney, 1975). 이러한 이유로 부모자녀관계의 중요성은 오랜 기간 문화보편적으로 강조되는 요소이자 현재까지도 다양한 이론적 체계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부모자녀관계 이론들은 주로 애착, 양육태도 등과 관련해 자녀의 정신적·신체적 독립과, 심리·사회적 발달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부모자녀관계를 다루었던 기존의 연구 대부분이 서구 이론들과 측정도구를 기준으로 부모자녀관계의 질을 평가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박수영, 2005), 과연 이러한 것들이 관계주의, 혈육의식, 측은지심, 희생과 헌신 등과 같은 한국문화 내의 부모자녀관계 특성을 얼마나 정확하고 깊이 있게 설명해주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즉 부모자녀관계의 중요성은 문화보편적으로 강조되는 요소이나, 그 주요한 접근과 적용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을 사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차이를 보일 수 있겠다. 이처럼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포함하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고려의 중요성은 이미 심리학 분야에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김의철, 2003), 국내에서도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연구 역시 비교문화 심리학의 관점(박영신, 김의철, 2000)이나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

유한 심리적 특징과 행동기제를 바탕으로 한 이론 연구(최상진, 이장주, 1999; 최인재, 2006)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부모자녀관계의 특징적인 차이를 살펴보면, 개인주의 및 유대-기독교 사상을 전제로 한 서구문화에서의 부모자녀관계는 애정과 통제를 바탕으로 자녀의 독립성과 개별성, 자율성을 강조하는 의식이 발달하였지만, 반면 집단주의와 유교사상을 전제로 한 한국문화에서는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 의존적이고 관계중심적인 인간관이 발달되어 있다(최상진, 2000; Markus & Kitayama, 1991). 또한 한국의 부모자녀관계는 혈육의식, 보은, 인간의 도리 등을 내포적 속성으로 한 부모자녀 간 유친(有親)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서구의 개인주의적 평등윤리 인간관계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박명석, 1993).

최상진, 김혜숙 및 유승엽(1994)은 이러한 한국문화에서의 부모자녀관계의 특성을 ‘부자유친성정’(父子有親性情)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하면서, 부모와 자녀간의 자애(慈愛)와 효(孝)를 바탕으로 한 감정·의식 동일체(同一體)적 친애관계라는 특징을 설명하였다. 즉 부자유친성정은 부모자녀간의 끈끈한 심정교류와 동일체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의 기쁨이나 슬픔은 자녀의 기쁨과 슬픔이 되고 자녀의 성공은 곧 부모의 성공이 되는 것이며 그 반대 방향도 똑같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부모에게 있어 자녀의 존재는 자신의 미래이기도 하고, 자신이 못다 이룬 꿈과 목표를 이루게 해주는 분신 같은 존재가 되기도 하며, 자녀를 위해 심리적·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부모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보편적 현상(김미숙, 김의철, 박영신, 2007; 박영신, 김의철, 한기혜, 2003)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자녀는 이러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철이 들면서 부모의 은혜에 대해 죄송함과 감사함을 가지며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하는 특성을 지니게 된다(김혜은, 이진순, 2006). 우리나라 청소년의 학업성취과정에서 기여하는 한국인의 토착적인 부모자녀관계 특성 연구에서 부모에 대한 죄송함 지각이 자녀들의 성취동기를 높이고 공부시간과도 직접적인 관련을 보였으며(박영신, 김의철, 한기혜, 2003), 어머니의 배려나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생각

하게 했을 때 아동의 즉각적인 욕구충족 행위가 지연되고 바람직한 행위를 수행하도록 하는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였다(정영숙, 1994).

한국사회에서 ‘개인’의 개념은 ‘우리’ 라는 의식을 토대로(이장주, 2002)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위치, 관계들을 통해 스스로를 정의하는 ‘상호의존적 자아’라는 독특한 자아개념이 발달하게 된다. 한국인의 ‘나’는 ‘가족’ 속에서 보존되고 계승되는 부분적 존재로, 자녀는 부모를 보살핌과 헌신을 제공하는 존재를 넘어 개인의 삶의 목표까지를 함께 하며 타인과 더불어 내가 속해있는 집단과의 접합 속에서 자아정체감을 확립해야만 나의 나됨이 갖추어지게 된다고 보았다(방희정, 2000 재인용). 이렇듯 조화와 관계,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강조하는 한국의 부모자녀관계 문화적 특징은 자녀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고유한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고 자기실현을 이루도록 양육하는 것을 부모의 양육태도나 성숙된 인간관으로 보는 서구적 가치관과는 그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이러한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한 한국적 부모자녀관계 특성과 관련변인과의 연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부자유친성정이 청소년 자녀의 자아개념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이장주, 2002), 부자유친성정이 높을수록 우울, 불안 등 자녀의 부적응적 정서가 낮으며(최인재, 2004), 대인관계 및 친사회적 성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수영, 이재연, 2005; 이운기, 2005). 가족 구성원간의 상호작용 및 가족체계이론을 바탕으로 한 순환모델(Circumplex Model)에서도 서구의 연구 결과와 달리 국내의 연구들에서는 가족의 응집성 수준이 높을수록, 즉 가족이 밀착 집단일수록 자녀들의 정신건강 수준이 높고(김수연 외 1993; 안양희, 1998; 최연실, 1996), 불안이나 우울을 더 적게 경험하며(박금희, 1986; 전귀연, 1993), 자아존중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김소영, 1996; 전귀연, 1993)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문화보편적으로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이나 가족의 건강성을 자녀의 심리·사회적 성숙의 중요한 예언 변인으로 인식하는 데는 합의를 하지만, 이러

한 애착의 형성 및 가족 건강성, 부모와의 상호작용, 자녀의 지각 등 그 개념의 질과 내용은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상이한 문화적 배경 안에서 자녀의 심리·사회적인 발달이나 성숙으로 나아가는 과정도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깊은 유대관계를 중요시하고 강조하는 한국문화에서 기존 서구이론의 관점으로만 부모자녀관계의 특성을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겠다. 서구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의 부모자녀관계는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고 깊은 유대감을 강조하는 역기능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서 자칫 부모자녀 간 병리적이고 심리·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 생각되지만, 오히려 한국문화에서는 깊고 친밀한 유대관계의 형성과 유지가 개인의 심리적 발달과 사회적응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해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가족과의 상호작용, 특히 부모자녀관계가 개인의 심리적 성숙과 건강한 자아의 형성을 예언하는 변인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자녀의 심리적 성숙의 특성으로 서구에서는 자아분화(self-differentiation)의 개념을 들고 있다. Bowen(1976)은 가족의 정서체계 및 가족원과의 관계, 특히 부모자녀와의 상호작용 결과 개인의 자아분화 수준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자아분화란 미분화된 가족 자아군에서 자신을 분리, 독립시켜 정체감을 형성하고, 자기충동적 정서적 사고와 행동에서 자유를 획득해 나가는 과정이다. 또한 개인의 사고와 정서를 분화시킬 수 있는 개인 심리내적 능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성숙과 외부세계 및 대인관계에서도 정서적 융합을 이루지 않고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입장을 취하여 효율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삶을 산다고 보았다(Bowen, 1982).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 불안의 정도가 높는데, 불안이 증가되고 만성적이 되면 유기체는 그 자체 내에서도 관계 체계 내에서 긴장이 증가되고, 증가된 긴장은 생리적 증상, 신체적 질병, 정서적 역기능, 충동적 행위, 위축, 사회적 비행으로 나타난다고 한다(Bowen, 1976). 국외 연구에서는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개인의 경우 정신건강이나 부적응적 행동과 우울, 불안 및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나타나고(Greene, 외 1986; Hoffman, Weiss, 1987), 국내 연구에서도

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 우울, 불안 등과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김보현, 1999; 이혜숙, 1992; 제석봉, 1989), 부적응 행동이나 비행, 대학생활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미영, 1993; 조명희, 박수선, 1999).

또한 Bowen(1978)은 체계이론(system theory)을 들어 인간에게도 생물체계와 같이 '개별화'와 '일체화'의 두 세력이 공존하며, 자아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두 세력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개별화'(individuality)는 유기체가 자주적이고 독립적이며 개별적인 실체로 존재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며, '일체화'(togetherness)는 타인의 인정과 집단에 소속되어 안정감을 누리려는 특성을 말한다. '개별화'의 용어는 개인심리학, 즉 한 개인이 생애초기와 청소년기의 모자와의 공생관계에서 분리와 독립을 이루며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용어와 흡사할 수 있겠으나, Bowen이 의도하는 'self-differentiation'은 지적·정서적 측면과 대인 관계적 측면을 적절히 분리, 융화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국내의 연구들은 '자아분화'의 용어를 '자아 분리화' 또는 '자기분화'와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으며 Bowen의 'differentiation'은 '분화'라고 하기보다 '분리화'라고 하는 것이 한국어 표현상 더 가깝고(박은영, 2003), 개인의 심리내적 분리 외에 관계적 차원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자기분화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정혜정, 조은경,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아분화로 통칭하고 개인 심리내적 측면과 타인과 환경의 관계적 측면을 함께 이루는 성숙의 개념으로서 자아분화를 다루고자 한다.

Kagitcibasi(1990)은 개인의 심리발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문화에 관계없이 자율성 욕구와 관계성 욕구 모두가 강조된다고 지적하였고, 개별성이나 관계성의 어느 한 차원만을 강조 할 때 필연적으로 인간의 심리적 발달이 제한된다고 보고되었다(Cushman, 1990; Dolinger et al., 1996; 김동직, 1999 재인용). 특히 가족체계는 그 안에서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들의 자아분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김정택, 심혜숙, 1993), 부모자녀 관계가 덜 친숙하고 부모로부터 개별화가 미약할 경우, 가족이 적절하게 기능하지 못할 경우 개인의 자아분화가 덜 이루어

진다고 하였다(Fine & Hovestadt, 1984; Hutchinson, 1986; Lewis, 1976; Moos, 1982).

그러나 개별화와 일체화의 적절한 균형, 가족체계의 기능 등은 문화에 따른 기대와 만족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Olson, 1983). 실제로 가족체계이론의 순환모델 중 가족 간 정서적 결속 혹은 유대감을 뜻하는 가족응집성의 경우 동·서양의 연구를 비교 했을 때 흥미로운 결과를 보인다. 서양에서는 가족응집성의 극단 범주에 속하는 밀착(enmeshment)관계일수록 개인의 외현화, 내현화 증상이 많이 보고되었고(Barber, 1992; Barber, Olson, & Shagle, 1994), 밀착된 관계가 가족 구성원 간에 심리적, 정서적 융합을 조장하며, 잠재적으로 개별화와 심리,사회적 성숙을 방해한다고 보았다(Barbarin, 1984; Barber et al., 1994). 하지만 국내 연구에서는 가족 응집성이 높을수록, 즉 밀착집단의 가족일수록 자녀의 대인관계나(최희량, 1998) 자아분화 수준이 높다고 보고되었다(고경애, 정민정, 2007; 박유화, 2001; 최인재, 2009). 이러한 결과는 상호의존적이고 관계 중심적인 한국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지닌다. 자아분화를 성숙의 측면으로 볼 때 높은 성숙의 차원은 문화보편적으로 비슷할 수 있으나, 성숙으로 나아가는 과정 혹은 그 과정의 내용과 질적 측면은 문화적으로 서로 상이할 수 있다(최인재,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적 부모자녀관계와 개인의 심리적 성숙의 차원인 자아분화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적 부모자녀관계가 자아분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지만, 한국적 부모자녀 관계로 인해 영향 받은 어떠한 특성이 매개하여 자아분화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매개 기능을 가진 변인으로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 관심을 두고자 한다. 그 이유는 가족의 상호역동인 가족응집력과 적응성에 의사소통이 매개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족체계 이론에 바탕을 두었고, 기존의 선행연구(고경애, 정민정, 2007; 김남희, 김성일, 2001; 김수현, 이지연, 2003; 김인아, 2008; 김홍규,

최재향, 2006; 유혜경, 2004; 이은숙, 1999; 최인재, 2004)에서 부모자녀관계나 가족체계유형과 의사소통을 관련변인으로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하였다.

가족 간 의사소통 방식은 가족이 건강하게 기능하고 부모자녀관계가 상호적으로 유지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의사소통을 통해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자녀는 그 속에 내포된 의미와 행동양식을 내면화하여 발달시켜 나가므로 부모와의 대화하는 방식이나 태도, 내용 등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김경원, 2000). 또한 의사소통은 부모자녀관계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하는 중요한 매개체이며(정명희, 1987), 부모자녀 간 건강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상호 자기개방을 할 때, 의견의 불일치나 갈등이 있어도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서로 수용과 배려를 통해 관계를 성장시켜 나감으로써 사랑, 자아존중감, 가치, 안정감, 정서적 지지 등 다양한 개인적 욕구를 성취할 수 있다(최외선 외, 2001).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과 관련변인들과의 연구를 살펴보면, 아버지와 자녀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청소년 자녀는 문제행동이나 비행을 덜하고(김수현, 이지연, 2003),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이 기능적이고 개방적일 때 자녀의 자아개념(이은숙, 1999), 자아정체감(김남희, 김성일, 2001)이 높았으며, 중·고등학생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과는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방문희, 1991). 반면 부모자녀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높은 초등학교 집단에서는 내면화, 외현화, 주의집중 곤란, 게임중독 경향성 등 문제행동이 더 많았고(김홍규, 최재향, 2006), 모-자녀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심리내적인 방어기제에 영향을 주어 특성불안이나 외현화 문제로 유발된다고 하였다(김인아, 2007). 이 밖에 가족의 응집력, 즉 부모자녀 간 정서적 유대감이나 친밀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부모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의사소통 방식이 다시 가족의 응집력을 강화시켜 준다는 결과가 있다(고경애, 정민정, 2007; 박수원, 2003; 오운선,

2008; 정은영, 신혜원, 2009; 최규련, 1998). 또한 자아분화와의 관계에서도 부모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한다고 지각하는 청소년일수록 자녀의 자아분화 수준이 높다고 보고되었다(김갑숙, 전영숙, 2009; 유혜경, 2004; 최인재, 2004). 이상의 연구와 이론들을 유추해 볼 때, 개인의 심리내적 발달과 환경적 적응에 있어 가족체계와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와 자아분화 수준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들 사이에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한국의 고유한 정서가 반영된 부모자녀관계 척도를 사용함으로써 한국적 부모자녀의 특성이 성숙의 지표인 자녀의 자아분화와 어떻게 관계 되는지 살펴보고, 만약 이들 간의 관계가 유의할 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부모자녀 의사소통이라는 변인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청소년기 후기와 성인초기로 접어든 대학생이며, 대상자를 대학생으로 선정한 이유는 한국의 청소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입시라는 당면과제로 인해 그 시기에 이루어져야 할 발달과업을 유보한 채 부모에게 의존적으로 생활하다가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비로소 부모로부터의 독립성을 추구하며 보다 직접적으로 갈등이나 문제 상황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경우 서구 대학생들과는 달리 대부분 부모에게 어느 정도의 의존성을 유지하며 심리적인 독립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 때문에 개인의 적응 문제를 한 개인만의 내적인 문제로 보기보다는 가족관계 안에서 조망하고자 하는 가족체계의 시각에서, 관계성이 우선시되는 한국 문화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역동이 심리적, 사회적 적응과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리라 보여 진다. 또한 집단과의 조화, 관계성을 중요시하는 한국문화에서 깊은 유대감 및 친밀감을 바탕으로 한 부모자녀의 관계지각이 자녀의 심리·적응의 지표인 자아분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봄과 동시에, 이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자아분화의 미성숙으로 인

해 나타나는 개인의 부적응이나 부모자녀간의 문제해결에 있어 보다 효과적인 상담접근법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 II. 이론적 배경

### 1. 부모자녀관계

#### 1) 부모자녀관계의 중요성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로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진정한 독립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는 장(場)이다(박순길, 2004). 부모자녀관계는 이러한 가정의 중심축이자 인간이 최초로 경험하게 되는 관계로서,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심리·사회적 적응양식을 습득하게 되고 사회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부모와의 상호관계에서 경험하는 질적 측면은 자녀의 성격형성이나 지적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사회적 관계에서의 성공유무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김재은, 1974; Bronfenbrenner & Mahoney, 1975). 이러한 이유로 심리학 뿐 아니라 여러 관련 학문분야에서도 부모자녀 관계를 개인의 심리·사회적 발달의 주요개념으로 다루어 왔다. 기존의 서구에서 연구되어 온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애착이론, 부모의 양육태도(Schaefer, 1959; Symonds, 1949), 부모자녀 의사소통(Barnes & Olson, 1982), 가족체계이론(Olson, Sprenkle., & Russel, 1979)에 따른 자녀의 심리 사회적 적응 및 발달과의 관련성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최인재, 2006).

부모자녀관계를 규정하는 연구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개념은 Bowlby의 애착(attachment)이론인데, 애착은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 느끼는 강한 정서적 유대관계(Bowlby, 1958; Ainsworth, 1971)로 성인기의 사회적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로 사용되어 왔다. 초기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애착경험은 자기 개념과 부모 외의 타인에 대한 기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중요한 정서적·애정

적 유대감이라는 개념으로까지 확장되었다(황영훈, 박은영 2003). 초기 부모와의 애착이 이후의 인간관계나 사회적 능력, 문제해결 양식과 정적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허미선, 2000).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자녀의 심리 사회적 적응 및 발달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육태도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일반적,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외현적, 내현적 행동 및 태도로 정의(김윤수, 2003) 할 수 있는데, 개인의 사회화 과정이나 과거경험을 통해 형성되어지며 가족구성이나 가정 및 사회 문화적 배경, 부모와 자녀의 개인적 요소 등과 깊은 관계를 가진다(Watson, 1965). Symonds(1949)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처음으로 유형화하고 부모자녀 관계를 거부-보호적 차원과 지배-복종적 차원으로 분류하여 각 유형에 따라 자녀는 문제행동이나 심리, 사회적으로 부적응을 겪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Schaefer(1959)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의, 통제-자율의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여 애정적인 부모는 정서적 따뜻함, 공감과 친밀함, 수용, 지지 등의 방식과 통제적 부모는 과보호, 과접촉, 독립심을 저해하는 태도나 행동에 대한 과도한 엄격성을 요구하는 특징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Baumridnd(1967)는 부모자녀 상호작용 유형에 따라 허용-익애적 유형, 권위주의적 유형, 권위 있는 유형으로 분류하여 자녀의 심리·사회적 특성들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즉 권위주의 유형의 부모 하에 성장한 자녀는 심리적 갈등을 많이 경험하며, 애정과 통제가 균형적인 권위 있는 유형의 부모 밑에서 성장한 자녀는 자기 통제력과 자기 신뢰도가 높고 사회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연구(최윤희, 1997)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이 외에 부모 양육행동을 수용적, 방임적, 과보호적, 거부적 양육 행동으로 구분하여 통제와 양육의 차원(Heilburn, 1973)에서 설명한 이론과 과잉보호와 돌봄(Parker, Tupling, & Brown, 1979)이라는 두 개의 차원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분류하여 제시한 연구가 있다.

부모자녀 의사소통 방식과 관련변인들과의 관계를 기초로 부모자녀 관계를

연구한 결과들(Barnes & Olson, 1982; Beaubien, 1970; Gordon, 1975; Satir, 1972)을 살펴보면, 크게 부모의 의사소통의 유형을 기능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과 역기능적이고 폐쇄적인 의사소통 유형으로 구분하여,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자녀의 인지·정서·심리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Gordon(1975)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나-메시지(I-message)와 너-메시지(You-message) 유형으로, Satir(1972)는 의사소통 유형을 순기능적 의사소통 및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고, Beaubien(1970)은 자녀와 부모의 대화 형태를 부모-자녀 쌍방 차단, 부모차단-자녀개방, 부모개방-자녀차단, 부모-자녀 쌍방개방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Barnes와 Olson(1982)은 부모와 청소년기 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을 개방형 의사소통 유형과 문제형 의사소통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에서 분류한 의사소통의 명칭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부모자녀 간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의사소통 방식은 가족 및 부모자녀 관계의 유대감이나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자녀의 인지적, 심리,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가족체계이론의 관점에서 부모자녀관계를 살펴보면 Olson, Sprenkle, Russell(1979) 등이 순환모델(Circumflex model)을 기초로 가족 구성원이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정서적 유대 및 상호의존성을 뜻하는 ‘가족 응집성’(cohesion)과 가족이 가족 내.외의 긴장에 대응하여 가족체계를 적절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인 ‘가족적응성’(adaptability)의 두 가지 차원으로 제시하였고, 이를 통합하여 부모자녀관계나 가족의 기능을 측정하고 있다. 이 모델을 근거로 한 연구들에서는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양극단에 속할수록, 밀착된 관계일수록 자녀의 일탈이나 내현적 증상을 더 많이 보인다고 하였고(Barber, 1992; Barber, Olsen, & Shagle, 1994; Bell, 1982; Rodick, Henggeler, & Hanson, 1986), 가족 구성원 간에 심리적, 정서적 융합을 조장하여 자녀의 개별화와 심리적 성숙을 방해한다고 보았다(Barbarin, 1984; Barber et al., 1994;

Greenberger & Sorensen, 1974; Olson, Russell, & Sprenkle, 1983).

이상의 서구이론들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부모자녀 관계측정과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관련 변인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부모에 대한 친밀감, 애정 혹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돌봄, 수용 등과 같은 내용들은 인간의 문화 보편적 특성들로서 국내의 연구에서도 그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동·서양의 가치관이나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르고 서구의 이론과 잣대만으로 한국문화 내의 고유한 부모자녀관계 특성을 얼마나 정확하고 깊이 있게 설명해주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박영신과 김의철(2000)은 한국의 초, 중, 고, 대학교 학생들에게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 통제, 무관심, 적대의 변인으로 측정하는 Rohner와 Pettengill (1985)의 '자녀양육태도 설문지'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성취동기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부모의 통제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취동기와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즉 서양의 청소년들과 달리 부모가 통제를 많이 할수록 청소년들의 성취동기가 높아졌다. 또한 미국과 한국의 부모자녀관계를 비교·연구한 결과(Rohner, Pettengill, 1985)를 보면, 미국 청소년들은 부모의 엄격한 통제를 부모의 적대적이고 비신뢰적이며, 거부적인 태도의 표현으로 지각한다고 반면,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의 엄격함을 통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학업적, 경제적, 사회적 성공을 위해 필요한 자애로운 간섭으로 받아들인다(박영신, 김의철 2004; Feldman & Rosenthal, 1991; Kim & Choi, 1994)는 것이다. 이처럼 부모자녀관계의 상호관계나 양육태도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자녀의 인식과 지각은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가족체계이론에 따른 서구의 연구에서는 가족응집성의 정도가 높은 밀착된 가족의 자녀일수록 비행이나 부적응 증상이 많이 유발되고(Barber, 1992; Barber, Olsen, & Shagle, 1994), 밀착된 관계가 가족 구성원간의 심리적, 정서적 융합을 조장하여 잠재적으로 개별화와 심리, 사회적 성숙의 발달을 저해한다고 보았으나(Barbarin, 1984; Barber et al., 1994; Greenberger & Sorensen,

1974; Olson, Russell, & Sprenkle, 1983), 국내의 연구들에서는 이와는 상반된 연구결과들이 제시되었다. 즉, 응집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정신건강 수준이 높고(김수연, 김득성, 1993; 안양희, 1988; 최연실, 1996), 불안이나 우울을 더 적게 경험(박금희, 1986; 전귀연, 1993)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이 더 높아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소영, 1996; 전귀연, 1993). 또한 대인관계적 측면에도 가족응집성이 높을수록 다른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최희량, 1998; 한혜준, 1994)하게 된다고 보고되었다.

가족체계유형과 의사소통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결과들을 살펴보면, 박수원(2003)의 연구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족응집성 수준에 따른 가족 의사소통 유형을 비교하였는데 가족유형 중 밀착집단이 가족 내 경계가 개방적이고 가족과 함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가족 간 의사소통 방식이 대화 지향적이라고 느꼈다. 이 외에도 중, 고등학생들이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부모와 개방적 의사소통 한다고 보고했고(최규련, 1998), 대학생 또한 가족응집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개방형 의사소통을 한다고 했다(오윤선, 2008). 국내의 다수의 연구들에서 가족응집력이 의사소통과 상관관계가 높고(고경애, 정민정, 2007; 정은영, 신혜원, 2009),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 가족 응집성이 높을수록 부모자녀 간 긍정적 의사소통이 나타났다(권미나, 2004; 이숙현, 민혜영, 1992).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가족 응집성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부모와 자녀 모두 부정적 의사소통을 높게 지각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 및 논의들을 살펴보았을 때, 부모자녀관계의 특성과 개인의 심리·사회적 적응양식은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부모자녀관계를 다루는 연구에서도 문화를 고려한 접근의 당위성을 제시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존의 서구의 이론과 부모자녀관계를 측정하는 도구로 한국적인 문화적 특성 및 부모자녀 관계를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고유한 한국적 부모자녀관계 특징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2) 한국적 부모자녀관계의 특성(관계주의와 부자유친성정)

부모자녀관계와 관련된 기존의 국내연구들은 부모자녀관계 특성이 문화에 따라 다르며 서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서구 문화의 부모자녀 관계를 바탕으로 구성된 이론들로 한국의 부모자녀관계를 설명하고 연구하는데 적용해 왔다. 또한 서구의 이론들을 근거로 개발된 척도를 단순히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해 왔다. 물론 서구의 부모자녀관계 이론들이 포함하는 변인들인 부모에 대한 친밀감, 애정, 자녀에 대한 돌봄, 수용, 기능적 의사소통의 유무, 가족 구성원간의 응집성 등과 같은 내용들은 인간의 보편적 특성들로서 국내의 연구에서도 그 타당성과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되었으나 한국적인 문화를 고려한 부모자녀 관계의 특성을 충분히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원초적인 인간관계인 부모자녀관계라는 외형은 문화 보편적 현상일수 있지만, 부모자녀 관계라는 개념의 질과 내용은 문화에 따라 서로 다르게 구성될 수 있으며(이장주, 2002), 이러한 차이는 역사-문화적 맥락이 다름으로 인해 발생된다(Vygotsky, 1978).

문화심리학적 관점에서 동양과 서양은 집단주의(collectivism)문화와 개인주의(individualism)로 대별 되는 바(Hofstede, 1980), 서양에서는 집단의 목표와 조화 이상으로 '나'의식, 개인의 자율, 정서적 독립, 성취, 사생활에 대한 권리, 즐거움의 추구 등에 가치를 두는 반면, 동양의 경우에는 개인이상으로 '우리'의식, 집단적 조화, 집단정체성, 정서적 의존, 결속 및 목표를 강조한다(Fletcher, Olekals & Cieri, 2001; Triandis, 1989). 즉 서양의 부모들은 자녀가 집단 내에서 자신의 개인적 관점과 시각을 고수하고 독립적이기를 기대하는 반면, 동양의 부모들은 자녀가 소속집단에 무리 없이 적응하고 심리적으로 의존하기를 기대한다(Rudowicz, 2003)고 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개인주의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집단주의 문화적 특징 이상으로, 한국문화에서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가족을 관계의 원형으로 봄으로써 가족 구성원간의 깊은 유대와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는 이른바 '관

계주의'(relationalism)로 구분지어 설명할 수 있다. 관계주의는 개인의 욕구에 따라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연합(coalition)을 이루는 형태를 지칭하고 자신의 확대를 통한 관계의 구성으로 볼 수 있으며(최상진, 2000),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는 것을 요구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조화를 이루어 낼 수 있는 정도가 대인평가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최인재, 2004).

한국사회의 이러한 관계주의는 유교사상의 영향아래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가장 강력한 집단인 가족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며 가족은 상호 아껴주고, 의존하며, 희생적으로 상호 봉사하는 것을 이상적인 모델로 삼는다. 이러한 관계의 속성을 일반화시켜 '정'(情) 또는 '우리'의식 이라 하고, 이러한 가치는 가족을 원형으로 생성되어 가족 내 부모자녀 관계를 통하여 전달 재생산된다고 할 수 있다(이장주, 2002). 이와 같이 가족은 규모는 가장 작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인의 자기존재의 근본이 되며, 사회적 인간관계의 모형이 되는 것은 물론 그 중요성은 매우 강조된다. 특히 부모자녀 관계를 기본으로 더 큰 집단과 관계로 확대되는 특징이 있다.

한국의 부모자녀관계는 일반적 사회관계와 구별되는 특수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으며, 효(孝)와 자(慈)라는 전통적 윤리규범에 의해 영향 받고 있다. 또한 혈육지정(血肉之情), 보은(報恩), 인간의 도리 등을 내포적 속성으로 한 부모자녀간의 유친(有親)관계를 형성한다. 이는 서구의 개인주의적 평등윤리 인간관계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고 하겠다(박명석, 1993). 최상진 등은(1994) 한국의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 항상 미안함, 측은감, 고마움 등과 같은 측은지정을 부지불식간에 거의 무의식 또는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고, 또 표현하고 있으며 부모들도 자식에게 똑같은 측은지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자녀의 기쁨과 고통이 부모의 기쁨과 고통이 되고 반대로 부모의 기쁨과 고통이 자녀의 그것으로 인식되는 부모자식 동일체 의식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장주(2002)는 한국문화에서의 부모자녀관계의 특성을 '부자유친성정'(父子有親性情)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하면서, 한국의 부모자녀관계는

부모와 자녀간의 자애(慈愛)와 효(孝)를 바탕으로 한 감정·의식 동일체(同一體)적 친애관계라는 특징을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부자유친성정이란 부모자녀 간에 존재하는 친밀한 마음과 그것의 발현을 총괄하는 의미를 가지는데(이장주, 2002) 이러한 동일체적 관계는 유친, 혈육의식, 측은지정, 감정동일체화 등과 같은 부자관계 특유의 성정을 바탕으로 한 심정 심리적 상호작용을 통해 길러진다. 혈육지정은 초기에는 부모로부터 시작되지만 자녀가 성장하고 사회화의 과정에서 자녀의 부모에 대한 지향성 성정으로 내면화되고, 일정한 시기에 이르면 이러한 성정이 부모자녀 간에 호환적으로 교환되고 증강, 보강된다. 이 과정에서 자녀는 부모에 대해 단순한 친밀감의 차원을 넘어 고마움, 송구스러움, 안타까움 등을 느끼며 동시에 보은의식을 갖게 되고, 부모는 자녀에 대해 측은지정과 더불어 혈육의식을 느끼게 된다. 특히 이러한 감정을 한국의 유교 문화적 전통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거나, 이에서 연유된 감정일 수 있다는 가정에서 ‘부자유친성정’이라고 잠정적으로 명명하게 된다(허동규, 2003).

이러한 동일체적 의식이 깊고, 그러한 의식이 자녀의 결혼 이후에도 오랫동안 유지되는 한국의 부모자녀관계를 서구의 개인주의적 문화의 시각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부모자녀관계는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으며, 융합되어 있는 역기능적이고 병리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정신질환이나 많은 심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최인재, 2005). 이러한 가정은 다른 사람들과 분리된 자신의 독특한 개성과 독립을 추구하고, 강조하는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논리가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 문화권에서는 위와 같은 해석은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한국문화에서는 개인주의문화와 달리 부모자녀간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 개인의 심리적 발달과 건강은 물론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해 볼 수 있다. Tamura와 Lau(1992)는 동양의 문화권과 같이 가족구성원간의 화목과 친밀한 관계유지가 강조되는 문화에서는 개인의 심리적 문제가 미분화에 기인한다기보

다는 통합이나 연결이 제대로 되지 못했을 때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한 연구에서 한국대학생과 독일대학생들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비교 결과 독일대학생은 개별성이, 한국대학생은 관계성이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설명변인으로 밝혀졌다(김동직, 1999). 한국문화에서의 개인의 성숙지표와 적응정도는 자기절제와 타인 배려를 통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얼마나 조화를 잘 이루어 나가는지의 정도와, 개인의 권리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의무를 잘 수행하는가의 정도로 측정될 수 있다(김효창, 손영미, 박정렬, 최상진, 2000; 최봉영, 1996).

특히 관계 중심적이고 정서적 유대감이 강조되는 한국문화에서의 부모자녀 관계는 가족체계 응집성의 관점에서 볼 때 응집력이 강하고 밀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을 통해 부모자녀관계를 검증한 서구의 연구에서는 응집성의 정도가 높은 밀착된 가족의 자녀일수록 비행이나 부적응 증상이 많이 유발되고(Barber, 1992; Barber, Olsen, & Shagle, 1994; Bell, 1982; Rodick, Henggeler, & Hanson, 1986) 밀착된 관계가 가족 구성원간의 심리적, 정서적 융합을 조장하여 잠재적으로 개별화와 심리, 사회적 성숙의 발달을 저해한다고 보았다(Barbarin, 1984; Barber et al., 1994; Greenberger & Sorensen, 1974; Olson, Russell, & Sprenkle, 1983). 그러나 국내의 연구에서는 서구와 반대로 응집성 수준이 높을수록 정신건강 수준이 높고(김수연, 김득성, 1993; 안양희, 1998; 최연실, 1996), 불안이나 우울을 더 적게 경험하며(박금희, 1986; 전귀연, 1993), 자아존중감(김소영, 1996; 전귀연, 1993)이나 자아분화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박유화, 2001; 심혜숙, 신영규, 1994; 최인재, 2009)고 보고하고 있다.

서구 문화권에서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기(ideal self)는 성장한 후에 가족이라는 친밀한 환경을 떠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며, 원가족 으로부터의 물리적, 정서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성숙의 지표로 삼는다(Hsu, 1985). 또한 당면한 심리적 욕구나 문제의 해결은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타인에게서 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타인과의 친밀감 형성의 문제가 서구 내담자들의 주요

한 관심사가 되는 반면(이선희, 2000), 한국의 경우 가족구성원간의 결속과 친밀한 관계의 유지가 강조되며(김효창 등, 2000), 당면한 스트레스 상황이나 문제는 주로 친구나 부모, 선. 후배 등 가까운 인간관계를 통한 해결을 선호한다(김의철, 박영신, 1997, 원호택, 이민규, 1987). 또한 자녀를 규제하고 훈육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서구의 경우 자녀들에게 합리적인 설명이나 설득의 방법으로 때로는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방법으로 규제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는 관계의 거리(interpersonal distancing)를 이용하여 자녀들을 양육한다(Azuma, 1986; 김의철, 2000 재인용). 즉 한국문화에서 부모자녀간의 친밀한 관계의 단절은 자녀의 입장에서는 큰 위협과 처벌이 되는 것이며, 반대로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의 형성과 이러한 관계의 지속적인 유지는 자녀들에게 안정적인 심리적 발달은 물론 관계주의 문화에 중요한 적응양식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주류 미국사회에서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신체 및 정서적으로 독립하는데 역점이 있는 바, 자녀들이 규칙을 어겼을 때 큰 벌로서 외출이 금지되고 집에서 가족과 같이 머물도록 강요된다. 반면 한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에서는 자녀양육 방식의 역점이 자녀의 독립보다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강한 결속을 유지하도록 강화하고 개인 스스로도 가족구성원간의 유대를 통해 안정감을 경험한다. 따라서 자녀들이 잘못을 했을 때 “집에서 나가라”는 말이나 “가족으로부터 제외 할 것이라는 위협”은 자녀에게 크고, 견디기 힘든 벌이된다(Berg, 1993).

한국의 문화는 유교문화에 바탕을 둔 가족주의 문화이며(정갑순, 2002), 관계 문화(장성숙, 2004)로 개인은 독립된 존재라기보다 상호관계의 망 속에 연결되어 있다. 가족관계가 모든 관계의 기초를 이루며(Lee, 1990) 사회적 관계도 가족관계의 확대이다(Kim & Choi, 1994). 한국사회에서 개인에게 가장 의미 있는 장이 바로 가족이며, 가장 근본적이고 긴밀한 관계로써 부모-자녀 동일체감이 형성된다(방희정, 2000). 이장주(2002)는 최상진 등(1994)의 부자유친성정 이론을 바탕으로 부자유친성정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그의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자

아개념이나 자아존중감 수준, 문제행동의 예방에 부자유친성정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분리와 독립이 발달의 방향이라고 보았던 서구의 성숙관에 대한 대안적 성숙관 모델의 원형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부모자녀간의 관계가 기능적인지 역기능적인지의 여부는 단지 관계의 외형적 틀인 그 관계가 밀착되었느냐 아니면 분리되었느냐 하는 서구 상담이론의 일률적 잣대로 설명하고 진단 내려서는 안 됨을 시사한다(최인재, 2005). 그 보다는 관계의 내용과 질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내담자가 살고 있는 사회 문화적 환경에서 중요시하는 가치나 신념의 기준에 근거하여 내담자의 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각을 지녀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 2. 자아분화(Self-differentiation)

### 1) 자아분화의 정의와 구성개념

정신분열증 환자의 가족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개인 중심치료를 하면서 가족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Bowen은 한 가족 성원의 정신분열증이 개인과 상호작용하는 병리적인 가족체계의 증상이며 개인의 증상은 그가 속한 가족체계와 관련지어서만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았다(박효원, 1993). 그는 가족을 일련의 상호관련성 체계와 하위체계로 이루어진 하나의 복합적 총체이며, 인간의 생물학적 본성에 근거한 정서적 관계체계라고 보고 두 개의 대응되는 공리로 가족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Murray Bowen(1976)은 가족치료자 중에서 가족역동성의 개념을 비교적 체계적이고도 포괄적으로 기술한 사람으로 그의 이론의 중심개념을 이루고 있는 것이 자아분화(Self-differentiation)개념이다. 자아분화는 정신내적인 개념인 동시에 대인 관계적 개념으로, 즉 정신내적 측면은 개인이 자신의 감정을 지적체

계에 의해 얼마나 잘 통제하고 지배하는가의 정도를 말하며, 관계적 측면에서는 자신과 타인 그리고 외부세계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지각하며, 대인관계에서 정서적 융합을 이루지 않고 자주적이고 독립적이며 목표 지향적 삶을 살 수 있는가의 정도를 말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아분화는 개인 내적 측면에서 지적 기능(intellectual function)이 정서적 기능(emotional function)에서 얼마나 분화되어 있는가를 말한다. 여기서 정서적 기능이란 ‘인간 내부의 자동적 기능을 관장하는 본능적인 경향’으로 자아가 분화되지 못한 사람은 정서적 과정에서 지적 과정이 분화되지 않고 융합되어 있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환경을 지각하지 못하며, 자동적 정서체계인 본능적인 충동에 따라 반응하게 된다(Bowen, 1976, 1982). 따라서 자아분화가 되지 못한 사람은 갈등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쉽게 부적응에 빠지게 되고 역기능적 행동이나 증상을 나타내게 된다고 본다(Hollander, 1983). 또 하나는 대인 관계적 측면으로 자아가 분화되지 못한 사람은 진아(solid self)가 발달하지 못하고 대신 가아(pseudo self)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일관된 신념에 따른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고 타인의 견해에 쉽게 동조하며, 타인으로부터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것에만 집중하거나, 혹은 공격이나 비난을 회피하는데 급급한 삶을 산다고 보았다(Bowen, 1976, 1982).

그러나 자아분화가 잘 이루어진 사람은 자신과 타인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지각하며 대인관계에서도 정서적 융합을 이루지 않고, 타인과 친근한 정서적 관계를 맺으면서도 잘 정의된 자아를 유지하고 있어,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뿐만 아니라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산다. 즉 개인 내적인 측면에서의 정서적 성숙과 관계적 측면에서의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자아분화의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Bowen의 이론은 인간이 건강하고 적응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적체계와 감정체계를 충분히 활용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기본 가정을 가

지고 있다. 즉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통해 자신을 환경 속에서 충분히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종속된 존재를 독립된 존재로 바꾸는 지적체계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자아분화의 목표는 지적체계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자동적 정서반응을 상실하거나 반대로 감정체계를 강조하여 지적체계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인지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 볼 수 있다(Friedman, 1991). 자아분화의 주된 구성개념으로는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자아의 통합, 가족 투사과정, 정서적 단절, 가족 퇴행의 다섯 가지가 있는데(Bowen, 1982; Hansen & L'Abatte, 1982)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으로 Bowen의 이론에서 한 개인의 자아분화 정도는 지적체계가 정서적 체계에서 얼마나 분화되어 있는가에 달려있다.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 지적체계가 분화 또는 발달되지 않아 정서적 체계의 지배를 받고 지적 기능과 정서적 기능이 융합되어 감정에 지배되는 삶을 살며, 사고와 추리 등의 인지적 기능이 결여되어 자기감정과 사실을 구별하지 못한다. 반면 자아가 분화된 사람은 지적체계가 정서적 체계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비판적 상황에서도 정서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지성을 바탕으로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며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목표지향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자신과 외부 세계를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지각, 평가하며 삶의 위기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이은주, 2001).

둘째, 자아의 통합으로 자아는 진아와 가아로 구성되어 있다. 자아의 분화는 진아가 발달된다는 의미로 진아는 명확한 신념과 견해, 확신 및 생활 원리로 구성되어 있어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보다 안정적이며 관계 체제의 영향을 잘 받지 않는다(Bowen, 1982). 그러나 가아는 위장된 자아로서 관계체제에 의해 결정되고 불안정하여 쉽게 변하며 사회적 압력이나 자극에 따라 유동적이고 타협적인 성격을 띤다(Hollander, 1983).

셋째, 가족투사(family projection)과정으로 부부의 자아가 분화되지 못한 핵

가족 정서체계에서는 부부간의 갈등이 심하거나 역기능적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 자녀와 삼각화(triangles)현상을 통해 부모의 정서적 긴장이나 부부간의 문제를 자녀에게 투사한다. 투사의 양은 대개 부부의 분화 정도, 불안의 정도, 부부가 자녀에게 가지는 선입관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투사는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차원에서의 관심과 달리 과잉관심이나 과잉염려,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융합을 일으켜 비정상적으로 따뜻하고 의지하는 구속의 관계 혹은 사이가 좋지 않은 갈등의 관계로 나타난다(황영훈, 박은영, 2003 재인용). 특히 어릴 때 부모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접한 자녀는 자아존중감을 가질 수 없어 불안, 적대감이 심하고 신체적 질환이나 정신증을 나타내기도 한다(Bowen, 1982).

넷째, 정서적 단절로 자녀가 부모와 삼각화를 통해 부모의 갈등 투사 정도가 심하거나 부모에 대한 미해결된 정서적 애착이 강할수록 자아가 분화되기 어렵다. 즉, 부모와 자녀는 공생적 애착 관계를 형성하여, 이로 인해 자녀는 부모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아를 분화시키지 않은 채 정서적 거리만 멀리하려는 정서적 단절의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박은영, 2003). 이러한 자녀는 부모와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되며 부모의 중요성을 부정, 부모로부터 스스로 위축, 부모와의 밀착을 필요로 하면서도 과민하게 기피하려고 하는데 그 정도가 심해지면 부모와 사는 동안 자신을 고립시키기도 한다(이명홍, 1984). 이러한 정서적 단절은 가정의 중요성을 무시하거나 가출을 통해 표현되기도 하며 자주 가출을 하거나 부모에 대한 반항, 외박이 잦은 청소년들은 이것이 독립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정서적 단절의 증거라고도 할 수 있고(제석봉, 1989). 정서적 단절이 심할수록 부모와의 관계 양상이 제 삼자와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

다섯째는 가족퇴행으로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가정에서는 지적 체계가 정서적 체계에서 미분화되고 동질화의 경향이 심하여 가족들이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할 때나 스트레스에 직면할 때 건설적 방법보다 퇴행적 방법으로 반응한다. 자아의 분화 정도는 가족의 상호 작용의 결과 그 수준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자아분화란 인간이 어머니에게서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자기를 인식

하게 됨에 따라 건강하고 안정적인 심리적 정서적 분리로 향해 가는 발달적 개념으로(배혜영, 2005), 자기 자신과 타인 그리고 환경을 올바르게 지각하고 그에 대한 지각이나 통제력을 갖추어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자신의 생활을 처리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아분화는 개인이 환경에 올바르게 적응하며 성장해 나가는데 지극히 필요한 지표가 될 수 있고 가족체계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이은주, 2001).

국외의 자아분화와 정신건강, 역기능적인 행동 등과의 연구를 살펴보면, 알콜 중독, 정신분열, 우울, 성격장애 등을 보이는 집단이 정상집단에 비해 자아분화 수준이 낮았고(Greene, 외 1986), 부모로부터 정서적 독립을 하지 못한 개인의 경우 부적응적 행동이나 우울, 불안, 대인관계에서의 문제를 보고하였다(Hoffman, Weiss, 1987). 국내 연구들에서는 자아분화 수준과 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 우울이나 불안, 적대감, 편집증 등의 정신건강과 높은 부적상관이 있었고(제석봉, 1989), 중. 고등학생의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부적응 증상 및 비행이 높고(권미영, 1993),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편집증, 강박증, 우울, 적대감이 높다(김보현, 1999; 이혜숙, 1992)는 보고가 있다. 또한 자아분화가 대학생활 적응(조명희, 박수선, 1999; 박유화, 2001)과 부부 적응(고현선, 1995)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낮은 자아분화 수준은 개인의 심리적 건강 및 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인관계나 부부관계에도 부적응을 초래한다. 제석봉(1989)은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역기능적 행동이나 증상이 많이 발생하고 특히, 가족 투사, 정서적 단절을 많이 경험하고 가족퇴행이 심할 때 역기능 행동이 유발된다고 하였다. Bowen(1982)도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 불안의 정도가 높을수록, 불안이 증가되고 만성적이 되면 유기체는 그 자체 내에서도 관계 체계 내에서 긴장이 증가되고, 증가된 긴장은 생리적 증상, 신체적 질병, 정서적 역기능, 충동적 행위, 위축, 사회적 비행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 2) 가족체계유형과 자아분화

출생가족은 각 개인의 자아분화 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라 볼 수 있다(김정택, 심혜숙, 1993). Bowen(1982)은 건강한 가족, 잘 적응하는 가족이란 가족원이 비교적 분화되고 만성적인 불안이 적으며, 부모가 그들의 원가족과 자율적이고 친밀한 정서적 접촉을 하는 가족이며 잘 적응된 사람은 합리적 객관성과 개별성을 이루면서도 가족과 잘 접촉하고 융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가족의 상호작용과 자아분화의 관련성을 연구들을 살펴보면, 국외의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관계가 덜 친숙하고 부모로부터 개별화가 미약하고 삼각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경우 자녀의 정서적 단절 정도가 높고 대인관계에서도 자율성이 부족하여 성숙한 개체로 성장하지 못한다고 하였다(Hutchinson, 1986). Lewis(1976)는 청소년의 정신병리적 성격은 전체 가족이 적절하게 기능하지 못할 때 나타나며, Fine & Hovestadt(1984)는 자기 가족 기능을 건강하게 지각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그렇지 못한 대학생보다 합리적 사고가 발달해 있다고 보고하였다. Moos(1982)도 아동 및 성인의 행동기능이 자기 가정환경에 대한 긍정적 지각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맺고 있다고 하였다. 순환모델이론의 가족기능 중 가족응집성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밀착된 가족 관계가 가족 구성원 간에 심리적·정서적 융합을 조장하며 잠재적으로 개별화와 자녀의 심리적 성숙을 방해한다고 보았다(Barbarin, 1984; Barber et al., 1994; Olson, Russell, & Sprenkle, 1983). Kleiman(1981)와 Margolin(1984) 외 다수는 가정에서의 부모자녀라는 세대간의 경계, 부모간의 연합이 가족 심리적 건강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연구를 보면 가족기능과 가족 간 상호작용이 개인의 자아분화와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일치하나 가족 응집성이 높을수록, 즉 밀착된 가족집단의 청소년과 대학생의 자아분화 수준이 높고(고경애, 정민정, 2007; 박유화, 2001; 심혜숙, 신영규, 1994; 최인재, 2009), 자

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가족에 대해 만족하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보고했다(신영규, 1994).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 해볼 때 가족관계나 가족기능이 가족 성원들의 심리 사회적 성숙의 발달은 물론 기능적이거나 혹은 역기능적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으나 건강한 가족체계나 가족기능은 이러한 정의에 있어 ‘문화적 차이’를 간과해서는 안 되며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가족의 구조, 관계에 대한 규범에 있어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박은영, 2002 재인용). 실제 Olson 등(1983)도 순환모델이론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순환모델의 적용에 있어 문화에 따른 기대와 만족의 차이를 고려해야 하며, 가족응집성의 수준이 밀착되었느냐 분리되었느냐의 기준이 아닌 가족성원들이 어떻게 지각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가족체계는 기능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 3) 한국적 부모자녀관계와 자아분화

서구 문화권에서는 원가족 으로부터의 물리적, 정서적 분리가 종종 개인의 성숙과 독립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서양인은 독립된 성인으로서 그들의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타인에게서 친밀감을 구하고자 하며 삶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관계에서 끊임없이 자신이 독립된 존재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전통적인 효 사상과 더불어 성인이 되어도 서구와 달리 가족과 많은 유대감을 보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결혼 후에도 단순히 부모와 분리되어 개별화되는 것만이 아닌 계속적으로 친밀한 유대관계를 맺고자 하며, 가족관계에서 독립성을 강조하는 서구와 다르게 한국 문화에서는 상호의존적인 유대관계를 강조하므로, 이러한 유대관계와 심리적 독립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박은영, 2002).

한국적 부모자녀관계 특성인 부자유친성정과 자아분화와의 관계를 보면, 두

개념간의 내용이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두 개념은 발달과정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로는 Bowen(1976)의 자아분화 이론을 살펴보면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지적 기능이 정서적 기능에서 분화하여 자신과 타인 그리고 외부세계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지각할 수 있으며, 대인관계에서도 타인과 정서적 융합을 이루지 않아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스트레스에서도 효율적으로 대처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개념은 표면적으로는 서구적 가치관인 자율성과 독립성 그리고 개별성 등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관계성의 측면도 동시에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Bowen(1971, 1978)은 자아분화에 대한 자신의 이론에서 체계이론(system theory)을 들어 인간에게도 생물체계와 같이 개별화(individuality)와 일체화(togetherness)의 두 세력이 공존한다고 보면서 자아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두 세력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제기하였다. 개별화의 세력은 유기체가 자주적이고 독립적이며, 개별적인 실체로 존재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며, 일체화는 타인의 인정과 집단에 소속되어 안정감을 누리려는 것을 말한다. 또한 관계에 대한 다른 많은 연구들에서도 부모와의 친밀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가족구성원간의 정서적 유대를 함께 나눌 때 부모와의 분리개별화나 자율성의 발달이 촉진된다고 지적하였다(Campbell, Adams, & Dobbs, 1984; Josselson, 1988). ‘개별화’(individuality)의 용어는 개인 심리학, 즉 한 개인이 생애초기와 청소년기의 모자와의 공생관계에서 분리와 독립을 이루며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용어와 흡사할 수 있으나, Bowen이 의도하는 ‘self-differentiation’은 지적·정서적 측면과 대인관계적 측면을 적절히 분리, 융화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국내의 연구들은 ‘자아분화’의 용어를 ‘자아분리화’ 또는 ‘자기분화’와 혼합되어 사용하고 있으며 Bowen의 ‘differentiation’은 ‘분화’라고 하기보다 ‘분리화’라고 하는 것이 한국어 표현상 더 가깝고(박은영, 2003), 개인의 심리내적 분리 외에 관계적 차원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자기분화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정혜정, 조

은경, 2007). 이렇듯 용어의 혼용과 함께 자아분화의 개념은 서구문화에서 탄생하였기에 서구의 가치관인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 개별성의 특성만을 강조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개별성 외에도 체계의 관점에서 일체화의 특성인 관계성의 측면도 동시에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Kagitcibasi(1990)은 개인의 심리발달을 위해서는 문화에 관계없이 자율성 욕구와 관계성 욕구 모두가 강조된다고 지적하였고, 개별성이나 관계성의 어느 한 차원만을 강조 할 때 필연적으로 인간의 심리적 발달이 제한된다고 보고되었다(Cushman, 1990; Dolinger 외 1996; 김동직 1999 재인용).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연구들에서도 부모와의 친밀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가족구성원간의 정서적 유대를 함께 나눌 때 부모와의 분리개별화나 자율성의 발달이 촉진된다고 하였다(Campbell, Adams, & Dobbs, 1984; Josselson, 1988).

특히 가족체계는 그 안에서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들의 자아분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김정택, 심혜숙, 1993) 가족의 상호작용과 자아분화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많이 보고되었는데, 관계가 덜 친숙하고 부모로부터 개별화가 미약할 경우, 가족이 적절하게 기능하지 못할 경우 개인의 자아분화가 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Fine & Hovestadt, 1984; Hutchinson, 1986; Lewis, 1976; Moos, 1982). 이러한 측면은 부모자녀간의 유대관계를 중시하고 깊은 유대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찾고 심리적 발달을 이루어 나가는 한국문화에서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다. 서구문화에서는 개별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관계성과의 조화를 지향한다면, 한국문화에서는 그 반대의 양태를 띤다고 볼 수 있다. 즉 타인과의 조화를 중시하고 유대관계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과 발달을 도모하고, 상호의존적인 자기관을 발달시키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동양 문화권에서 지향하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자기’확장(안신호, 1999)이나 사회적 관계체제(조금호, 1999)로서의 성숙으로 나아가게 된다. 문화보편적으로 가족이나 부모자녀 간 친밀관계나 유대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친밀관계의 정도와 내용 그리고 관계의 유지에 있어 문화 간 차이를 보인다고 하겠다. 즉 심리적·사회적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 개별성과 일체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을 때 부모자녀관계를 통해 나를 확장하고 혈육의식, 측은지정, 동일체감을 바탕으로 한 부모자녀 간 심정적 상호작용은 관계성을 통한 안정적인 개별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국적 부모자녀 관계의 특성과 자아분화의 관련성 연구는 아직 많지 않으나, 이장주(2002)가 부자유친성정(최상진, 1994) 이론을 바탕으로 한 부자유친성정척도를 통해 부자유친성정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고, 문제행동 예방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밝혔다. 또한, 후속 연구에서도 청소년, 대학생을 중심으로 부자유친성정이 높을수록 자녀의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등 부적응적 정서가 낮았고, 자아분화, 대인관계 및 친사회적 성향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수영, 이재연, 2005; 이운기, 2005; 최인재, 2004).

### 3. 의사소통

#### 1)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유형

의사소통이란 둘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 생각, 의견, 또는 감정의 교환을 통해 공통적 이해를 이룩하고 의식이나 태도,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일련의 행동으로써 “상호간의 공통적 이해”가 중심이 된다(민하영, 1991). 이러한 의사소통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며, 사회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간이 의사소통을 통해서 서로의 공통된 의미를 창출하고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게 된다. 의사소통(communication)이란 말은 라틴어의 “communis”라는 단어에서 유래 되었는데 이는 ‘공통’ 또는 ‘공유’의 뜻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이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인간들 간의 정보, 의

견, 감정, 태도, 사실, 생각 등을 공유 또는 공통화 하는 행동으로써, 인간 상호간에 주고받는 메시지를 통하여 서로의 감정과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김오남, 1994). 이 외에 의사소통의 정의로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매개체로서 대인관계의 순환적인 과정 및 행동(정유미, 1997), 생각이나 감정을 언어적, 비언어적 수단을 통해 교환함으로써 상대방의 의견이나 감정을 상호간에 느끼고 의식이나 태도,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일련의 행동(이상수, 2001)이라고 하기도 한다.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가족을 “하나의 조직화되고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관계상의 상호작용체계로서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공간을 공유하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주고받는 메시지를 통하여 일치된 대인간의 이미지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다(Galvin, & Brommel, 1986).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은 관계의 형성, 의사결정, 느낌이나 정보의 교환, 자녀의 정서적 발달, 가족원간의 이해, 유대감과 가족의 응집력 형성, 갈등의 처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자녀는 가정에서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의사소통 기술을 발전시키고 다른 사회 집단에 적응해 나가는 방법을 배운다(양영미, 2003).

부모자녀관계는 일방적 관계가 아닌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적 교류관계로서 광범위한 경험과 책임을 공유하는 밀접한 관계이다. 부모자녀의 상호작용은 상호간의 공통적 이해를 근간으로 해야 효율적으로 이루어짐을 고려할 때, 부모자녀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수단인 의사소통은 언어적 상호작용으로 부모자녀관계를 분석하는데 강조되어야 할 요소라 할 수 있다. 또한 의사소통은 부모자녀관계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하는 중요한 매개체이며(정명희, 1987), 부모자녀 간에 건강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상호 자기개방을 할 때, 의견의 불일치나 갈등이 있어도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서로 수용과 배려를 통해 관계를 성장시켜 나감으로써 사랑, 자아존중감, 가치, 안정감, 정서적 지지 등 다양한 개인적 욕구를 성취할 수 있다(최외선 외, 2001).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정의되고 있는데 의사소통 유형이란 전달된 메시지의 내용에 관한 것 이라기보다는 메시지의 전달방식이나 전달과정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서 성원 상호간의 밀접한 감정 교류와 개인의 생각이나 관심 등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언어적 상호작용의 전달 방식이라 할 수 있다(김수현 2003).

Gordon(1975)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을 애정과 존경을 바탕으로 절친한 관계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You-message(너 전달법)”과 “I-message(나 전달법)”으로 구분하고 있다. You-message는 명령, 경고, 설교 등으로 자녀를 비난 혹은 평가라는 식의 의사소통을 말한다. I-message는 자녀의 행동에 대해 부모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전달함으로써 부모의 입장 및 느낌을 알려주고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의사소통 방식은 자녀의 긍정적 자아관을 형성하는데 효과가 있다.

Satir(1972)는 의사소통유형을 가족체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크게 순기능적,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을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방관형”, “산만형”으로 분류하였다. 회유형은 자신의 의사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려고 애쓰는 유형이며, 비난형은 지배적이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유형을 말한다. 초이성형은 객관적이고 냉담하여 정서적 교류를 하지 않는 유형이며, 방관형은 주변일에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는 유형이다. Beaubien(1970)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타나는 메시지의 선택, 메시지의 전달, feedback 요소를 특정 범주로 나누어 의사소통으로 분류하였다. 그는 청소년의 의사소통 활동과 어머니의 반응을 관련지어 “쌍방 차단형”, “자녀차단-어머니 개방형”, “자녀개방-어머니 차단형”, “쌍방 개방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Bernstein(최인경, 2001 재인용)은 어머니 아동간의 상호작용을 언어유형에 따라서 제한된 어법과 정교한 어법으로 구분하고, 아동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언어통제 유형을 “명령적 통제”, “지위지향적 통제”, “인성지향적 통제”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는 가족역할 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언어통제 유형을 지위 지향형과 인성 지향형으로 분류하였다. 지위지향형은 각개인의 사회적 지위에 입각한 제한된 언어를 사용하며 개인의 행동이 역할기대에 의해 통제된다. 따라서 폐쇄적 의사소통형식을 갖게 된다. 인성지향형은 가족구성원의 귀속적 지위보다는 심리적 속성이나 상황에 따라 역할이 달라지므로 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지며 개방적 의사소통형식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Eric Berne(이원영, 1991 재인용)은 의사소통유형을 보완적 상호교류, 교차적 상호교류, 잠재적 상호교류로 분류하였다. 보완적 상호교류는 양자간의 심리적 갈등이 없기 때문에 원만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장 이상적인 의사소통이다. 교차적 상호교류는 예상이외의 반응이 되돌아오는 것처럼 기대에 맞지 않는 반응이 교차 할 때 보여 지는 의사소통유형으로, 두 사람 관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며 의사소통을 할 때마다 교차하면 두 사람 관계가 심각하다는 것을 뜻하고 심하면 정신과치료를 받기도 한다. 잠재적 상호교류는 표면적으로는 합리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주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교류를 말한다. 그러므로 건전한 인간관계에서는 직접적이고 상호보완적인 교류가 이루어 져야만 한다.

Barnes과 Olson(1982)은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을 순환 모형에 기초하여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기능적인 수준이 되도록 도와주는 개방형 의사소통과 이를 방해하는 문제형 의사소통으로 구분하였다. 개방형 의사소통은 정확하고 모순되지 않는 메시지를 보내고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에서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는 의사소통 유형이다. 이에 반해 문제형 의사소통은 일치되지 않고 모순된 메시지를 보내며, 부정적인 발언을 하며 의사소통을 주저하고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역기능적 방식을 의미한다. 기능적인 가족에서는 가족원들이 분명한 의사소통망을 성립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발전시켜 나가며 상호 의사소통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지만,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가족들은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거나 긍정적인 반

응을 하지 않으며 새로운 상황에 적절히 행동할 수 있는 기술 및 능력이 부족하다(Olson, 1982).

이 밖에 국, 내외 여러 학자들이 의사소통 유형을 분류하였는데, Carhuff(1969)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비촉진적 의사소통, Gumperz(1973)의 인성 지향형과 명령지향형, 지위지향형, Hawkins 등(1980)은 친숙형과 분석형, 억제형과 차단형으로 분류되고, 국내에서는 김정희(1987)의 수평협력과 쌍방통행형, 수직, 강압 지시적인 일방통행형으로, 송성자(1985)의 기능적 의사소통 유형과 역기능적 의사소통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학자들에 따라 의사소통은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지만 종합하여 살펴보면, 크게 기능적인 의사소통과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으로 분류되고 있으며(양영미, 2003), 이러한 의사소통 방식이 부모와 자녀 간에 상호작용으로 일어날 때 자녀의 발달은 물론 부모자녀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내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측정 및 의사소통 유형방식과 관련변인들의 연구에서 Barnes와 Olson(1982)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가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다(장사익, 2001). 부자유친성정 척도와 의 공인타당도 검증에서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여 부모자녀 관계를 잘 측정해 준다고 볼 수 있다(이장주, 2002).

## 2) 부모자녀관계와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매개수단임과 동시에 자녀의 심리적, 정서적, 행동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장해순, 강태완, 2005). 청소년들에게 있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은 청소년들의 급격한 신체적 정서적 변화로 인해 일어나는 의문, 오해나 갈등 그 외 문제들을 극복하고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고(남현주 1997; 정명희 1988),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인간관계 및 올바른 인

간으로서의 성장 발달을 돕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정혜영 1987; 김미호 1989; 민혜영 1990; 이지연 2003). Gordon(이형득, 2002 재인용)은 부모자녀 간에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갈등이 생기는 것은 대부분의 부모들이 장에 요인적 언어표현을 많이 하고 과거 답습적 자녀양육방법과 성인 중심적 인간관으로 자녀를 대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상호간 의사소통에 공통적인 이해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개방적이고 지지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Kennedy(권미영, 1993 재인용)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표현, 감정적지지, 부모 스스로의 자기태도에 대한 확신과 표현 등의 중요함을 역설하였고, Foley(이지연, 2003 재인용)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기능적이 되려면 부모가 개방, 공감, 지지, 긍정, 동등성의 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순기능적인 의사소통은 가족 내에서도 가족성원간의 상호작용이 긍정적 관계를 형성해주는 바탕으로서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가족관계의 기능을 강화시키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의사소통에 공통적인 이해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부모가 자녀를 독립적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개방적이고 지지적인 의사소통을 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였다(김수현, 2003).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과 관련변인들과 관계를 연구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Alexander(1973)는 비행청소년의 가족은 지지적인 의사소통보다 방어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한다고 했고, 김수현과 이지연(2003)은 아버지가 자녀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할수록 청소년들은 문제행동을 덜 한다고 보고했다. 김홍규와 최재향(2006)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높은 집단은 내면화, 외현화, 주의집중 곤란, 게임중독 경향성 등 문제행동이 더 많다고 나타났다. 김인아(2008)는 모-자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자녀의 심리내적인 방어기제에 영향을 주고 특성불안이나 외현화 문제로 유발된다고 하였다. 이와 반대로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 방식은 초등학생 자녀의 자아개념(이은숙, 1999)과, 자녀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정적인 상관이 있었고(김남희, 김

성일, 2001), 중.고등학생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방문희, 1991) 및 자녀의 사회적 성숙과 정적인 관련성(김경원, 2000)을 보고했다.

앞서 언급되었던 가족체계 이론의 순환모델에서는 가족기능 가운데 응집성과 적응성은 의사소통이라는 변인에 의해 변화할 수도 있고, 의사소통이 촉매역할을 한다고 본다. 가족체계유형과 의사소통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결과들을 살펴보면, 박수원(2003)의 연구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족응집성 수준에 따른 가족 의사소통 유형을 비교하였는데 가족응집성 수준이 높을수록 대화 지향적이었다. 즉 가족유형 중 밀착집단이 가족 내 경계가 개방적이고 가족과 함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가족 간 의사소통 방식이 대화지향적 이라고 느꼈다. 이 외에도 중, 고등학생들이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부모와 개방적 의사소통 한다고 보고(최규련, 1998)했고, 대학생 또한 가족응집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개방형 의사소통을 한다고 보고했다(오윤선, 2008). 국내의 다수의 연구들에서 가족응집력이 의사소통과 상관관계가 높고(고경애, 정민정, 2007; 정은영, 신혜원, 2009),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 가족응집성이 높을수록 부모자녀 간 긍정적 의사소통이 나타났다(권미나, 2004; 이숙현, 민혜영, 1992).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가족 응집성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부모와 자녀 모두 부정적 의사소통을 높게 지각하는데, 응집성이 낮다는 것은 구성원간 접촉이나 애정표현이 적으며, 지나치게 개인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부정적 의사소통은 관계가 해체되고 상대방 의견을 경청하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새로운 상황에서 적절하게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지식, 기술, 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한다(김경화, 1989).

동양의 문화는 서구에 비해 언어적 표현이 덜 직접적이고 표현의 양도 많지 않다고 한다(최인재, 2004). 특히 한국적 부모자녀관계 특성상 우리성, 정, 마음, 심정교류 방식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최상진, 김기범, 1999; 이장주, 2002)고 하지만 부모자녀관계와 의사소통과의 관련변인 연구 및 가족체계 이론(고경애, 정민정, 2007; 김남희, 김성일, 2001; 김수현, 이지연, 2003; 김인아, 2008; 김홍

규, 최재향, 2006; 유혜경, 2004; 이은숙, 1999; 최인재, 2004) 등을 토대로 했을 때, 부모자녀관계를 안정적으로 지각하고 가족 간 응집성과 정서적 유대감을 좋게 지각할수록 의사소통의 방식은 기능적으로 작용 할 것이고, 이러한 의사소통 방식이 다시 가족의 관계를 더욱 끈끈하고 유기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 3)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자아분화

Ginoft(정명희, 1998 재인용)는 변화하는 자녀의 개인적 특성과 불안정한 부모의 자녀관계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만 관계는 더욱 잘 적응 할 수 있을 것인데, 부모자녀간의 상호이해를 통한 적응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부모자녀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는 건설적인 방식으로 대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자아분화는 가족 상호작용결과 그 수준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자아분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상호작용과 기능에 있어 가족 의사소통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부모와 의사소통이 기능적일수록 부모나 자신의 과거로부터 단절하고자 하는 경향이 적고 가족의 갈등이나 위기를 잘 대처하는 행동양식, 부부갈등이나 위기가 투사되는 정도 적고 불안이 적다(김갑숙, 전영숙, 2009). 의사소통과 자아분화를 직접 다룬 연구는 많지 않으나, 자아분화와 관계에서도 부모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한다고 지각하는 청소년일수록 자녀의 자아분화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김갑숙, 전영숙, 2009; 유혜경, 2004; 최인재, 2004), 송은진(2011)의 연구에서도 가족변인에 따른 의사소통유형과 자아분화수준을 Satir의 의사소통 유형으로 나누었을 때 무조건적으로 타인에게 맞추는 회유형이 자아분화 수준이 가장 낮았다.

가족체계 유형과 의사소통의 관련성을 본 연구에서는 김진희(1989)는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은 집단에서 부모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을, 그리고 가족

적응성 및 응집성이 모두 낮은 집단에서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빈번하게 일어남을 밝히고 있다. 김윤희(1990)의 연구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의 점수가 높고, 신영규(1994)는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체계와 자아분화와의 관계를 연구하여 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을수록 대학생의 자아분화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장사라(2001)의 연구에 의하면 자녀는 부모와 개방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은 가족퇴행, 정서적단절, 인지적기능 대 정서적기능, 가족투사 과정의 순으로 의미 있는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고,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은 정서적단절, 가족퇴행, 인지적기능 대 정서적기능, 가족투사 과정의 순으로 정적상관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다. 선행연구 대부분은 가족체계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한다. 즉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자녀가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을 높게 지각한다고 보고(Barnes & Olson, 1985; 김진희, 1989; 조은경, 서병숙, 1994; 박은주, 김경신, 1995)하고 있고, 또한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을수록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다는 보고가 있다(김윤희, 1989; 이정우, 김규원, 1989; 민하영, 1991; 이금, 박옥임, 이경주, 1994).

기존 연구들에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은 정적 상관을 보이지만, 의사소통이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에 선행하는지 여부는 연구마다 일치되지 않는다. 그러나 가족체계의 응집성과 적응성의 개념은 가족원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가족의 특성이라 할 수 있고 의사소통은 가족원간의 객관적이고 역동적인 실제 상호작용 결과를 나타내므로, 의사소통보다는 가족의 특성이 좀 더 덜 유동적이고 가족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아 가족체계의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최규련, 1998). 따라서 부모자녀관계 및 가족적응성과 응집성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가족 상호작용의 결과로 자녀의 자아분화를 발달시킬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 III.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한국적 부모자녀관계를 독립변인으로, 자아분화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및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한국적 부모자녀관계, 자아분화,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가설 1. 한국적 부모자녀관계, 자아분화,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한국적 부모자녀관계와 자아분화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가설 2. 한국적 부모자녀관계와 자아분화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부분매개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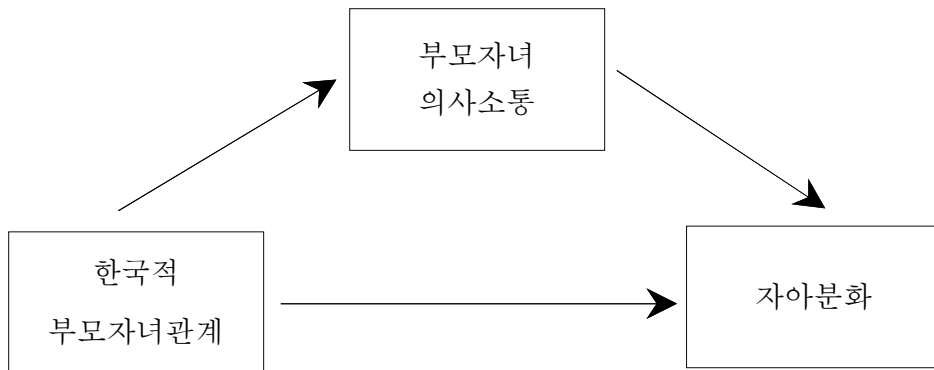


그림 1. 한국적 부모자녀관계, 부모자녀 의사소통, 자아분화의 관계 모형

## IV.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방에 위치한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남, 여 대학생 5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530부가 수거 되었으며 그 중에서 누락된 문항이 많거나 무성의하게 응답한 설문지 58부를 제외한 472부를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세한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 과 같다.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N(=472)	백분율(%)
성별	남	202	42.8
	여	270	57.2
학년	1학년	188	39.8
	2학년	131	27.8
	3학년	71	15.0
	4학년	82	17.4
연령	만 18세-21세 이하	298	63.1
	만 22세-25세 이하	155	32.9
	만 26세 이상	19	4.0
출생순위	만이	226	47.9
	중간	60	12.7
	막내	161	34.1
	외동	25	5.3
아버지 연령	30대	2	0.4
	40대	109	23.1
	50대	337	71.4
	60대 이상	24	5.1

아버지 학력	대학교졸 이상	122	47.0
	고졸	195	41.3
	중졸	41	8.7
	초졸 이하	14	3.0
어머니 연령	30대	3	0.6
	40대	229	48.5
	50대	228	48.3
	60대 이상	12	2.5
어머니 학력	대학교졸 이상	137	29.0
	고졸	275	58.3
	중졸	44	9.3
	초졸 이하	16	3.4
부모님 결혼관계 상황	결혼 유지	419	88.8
	별거	9	1.9
	이혼	31	6.6
	한분 사망	13	2.8
부모님과 주거형태	동거	351	74.4
	별거	121	25.6
가족 화목도 수준	매우 화목	129	27.3
	화목	206	43.6
	보통	110	23.3
	불화	21	4.4
	매우 불화	6	1.3
가정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2	2.5
	200만원 미만	64	13.6
	300만원 미만	155	32.8
	400만원 미만	103	21.8
	400만원 이상	138	29.2

## 2. 측정 도구

### 1) 부자유친성정 척도

본 연구에서는 한국적 부모자녀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최상진(1994, 2002)의 부자유친성정 이론에 기초하여 이장주(2002)가 개발한 부자유친성정 척도 (Parent-Adolescent Affective Bonding Scale)를 사용하였다. ‘부자유친’이란 삼강오륜의 ‘부모자식 간에는 친함’이 있다는 항목에서 차용하였는데, 말 그대로 ‘아버지와 아들간의 친함’이란 의미보다 ‘부모와 자식 간의 친함’이어야 한다는 관용적인 의미로 생각 할 수 있다. ‘성정’이란 마음의 구성요소 중 타고난 기질과 이러한 마음의 발현을 의미하며(금장태, 1998), 따라서 부자유친성정은 ‘부모자녀 간에 존재하는 친밀한 마음과 그것의 발현’을 총괄하는 의미를 지닌다(이장주, 2002). 또한 한국의 부모자녀 관계를 ‘친’(親)이라고 정의하고 여기서 ‘친’이란 자애(慈愛)로 표현되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과, 효(孝)라고 표현되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공경을 의미하며(백혜리, 1999), 이를 바탕으로 혈육지정(血肉之情), 보은(報恩), 인간의 도리 등을 내포적 속성으로 한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한다. 이는 평등윤리 및 부모자녀관계가 상호독립성을 전제로 개별화가 잘 되었을수록 성숙했다고 보는 개인주의적 인간관계의 서구적 개념과 다르게(박명석, 1993), 부자유친성정은 나와 우리, 집단의 조화를 강조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규정해 나가는 상호의존적이고 관계 중심적인 인간관을 바탕으로 한다(최상진, 2000). 한국문화에서 부모자녀관계는 일심동체적 의식이 뿌리 깊게 작용하여 부모의 기쁨과 슬픔은 자녀의 기쁨과 슬픔이 되고 자녀의 성공은 곧 부모 자신의 성공이 되는 것이며, 그 반대 방향도 똑같다고 본다. 즉 부모자녀 간에 심정적 교류가 강하고 빈번하게 일어나며 부모가 자녀를 위해 애쓰는 정도에 따라 자녀의 마음 쓰기의 정도도 달라진다는 것에 근거한다.

이 검사의 척도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아버지 20문항, 어머니 20문항 총 40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위 척도로는 아버지 어머니 각각 일체감 요인 12 문항과 헌신성 요인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체감 요인은 자식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더라도 감싸주려는 ‘보호’, 자식을 끝까지 믿어주고 자식이 하고자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려는 ‘이해’, ‘격려와 조언’, 세대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관심’을 갖고 있음과 시시콜콜한 일상생활에 대한 대화 속에서 주로 경험되는 것이다. 즉 부모가 자녀에 대해 ‘자랑스러워함’ ‘존중함’ ‘믿어줌’ 등의 내용이 주로 묶여서 전체적으로 자녀의 부모에 대한 믿음과 지지, 동일체감의 정도를 보여준다고 판단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헌신성 요인은 부모가 자식에게 일상생활의 후원과 좋은 것을 자식에게 양보해주려는 마음, 부모의 몸이 피곤하거나 불편하더라도 자식을 위해 애쓰는 희생의 경험에서 주로 유발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녀는 부모로부터 ‘아껴줌’, ‘보살펴줌’, ‘희생’, ‘양보’를 지각함으로써 부모에게 ‘고생’과 ‘죄송’, ‘고마움’ 등의 측은지정(惻隱之情)의 정서가 유발된다(최인재, 2004). 또한 이러한 자녀의 감정 반응은 부모에게 ‘잘 해드리고 싶다’, ‘효도하고 싶다’, ‘보답하고 싶다’ 등의 행동 경향성(action tendency)으로 나타난다(이장주, 2003).

부자유친성정 척도는 아버지 부자유친성정과 어머니 부자유친성정으로 나뉘고 두 점수를 합산하여 부모에 대한 부자유친성정을 측정한다.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우리성, 동일체감 의식을 바탕으로 자녀는 부모가 자식에 대한 마음씨를 크게 지각하고 정서적인 유대감 및 친밀감, 밀착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Cronbach's α는 .95였으며, 척도의 구성내용은 표 2 와 같다.

표 2. 부자유친성정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아버지 일체감	1 - 8, 10, 11, 12	12문항	.93
아버지 헌신성	9, 13 - 20	8문항	.90
어머니 일체감	1 - 8, 10, 11, 12	12문항	.92
어머니 헌신성	9, 13 - 20	8문항	.91
전체		40문항	.95

## 2) 자아분화 척도

자아분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Bowen 가족체계 이론을 토대로 제석봉(1989)이 개발한 자아분화 척도(Self-Differentiation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인지적기능 대 정서적기능, 자아의 통합, 가족투사과정,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의 다섯 가지 하위 척도로 나누어지고 총 3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모든 문항은 4점 척도로 평가되며 문장의 진술이 부정적인 경우 그 점수 배점은 역으로 주어진다. 각 하위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즉, 인지적 기능과 정서적 기능이 잘 분화되어 있으며, 자아의 통합수준이 높고, 가족투사,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 수준은 낮다고 볼 수 있다. 각 하위척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적기능 대 정서적기능은 지적체계(intellectual system)가 정서적체계(emotional system)에서 얼마나 분화되어 있는가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아분화 수준이 낮으면 지적체계가 분화 또는 발달되어 있지 않아 주로 정서적체계의 지배를 받게 된다. 따라서 사고와 추리 등의 인지적 기능이 결여되어 있으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충동적이거나 감정반사행동을 하기 쉽다. 문항 내용

은 사려성, 자기감정의 통제능력 등의 분화를 측정 할 수 있는 문항과 충동성, 합리화, 불안정감을 주목적으로 하는 행위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지적체계와 정서체계가 잘 분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자아의 통합은 개인의 관계체계 또는 타인이나 상황으로부터 정서적인 압력을 받을 때 얼마나 자기 자신의 신념과 생활원리를 잘 견지하고 있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통합의 수준이 높을 것을 의미한다. 셋째, 가족투사과정은 자아가 분화되지 못한 핵가족정서체계에서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 부부간의 문제나 부모 자신들의 미분화 특성을 특정 자녀에게 투사하게 되는데 이러한 투사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어릴 때부터 투사의 가능성이 높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투사를 하기 쉬운 부모의 특성, 자녀에 대한 과도한 불안과 근심을 묻는 문항과 과거에서부터 부모가 표명했던 근심과 현재상태의 일치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투사과정이 적게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정서적 단절은 가정의 중요성을 무시하거나 가출, 고립, 부정 등의 정신내적 기제를 통해 부모나 자기 자신의 과거로부터 단절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부모에 대해 애착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부정이나 고립 등의 정신내적 기제의 사용, 부모에 대한 반항, 가출의 욕구를 통한 정서적 거리유지, 위장된 독립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단절이 적게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가족퇴행은 가정에 위기가 발생 했을 때 가족성원들이 여기에 대처해 나가는 방법, 가족 성원들 간의 갈등처리방법이나 폭력 등의 유무, 자기책임을 회피 하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행위, 스트레스가 발생 했을 때 가족 성원들의 동질화 추구경향, 가정 문제가 발생 했을 때 제 3자의 삼각화 경향, 기타 가족구성원간의 역기능적인 의사거래유형 등 가족성원들의 퇴행적 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구성원들의 퇴행적이고 역기능적인 행동이 적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 척도의 Cronbach'a는 .86 이었으며 척도의 구성내용은 표 3 과 같다.

표 3. 자아분화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1), (2), 3, (4), (5), (6), (7)	7	.68
자아의 통합	8, 9, 10, (11), (12), 13	6	.68
가족투사과정	(14), (15), (16), (17), (18), (19)	6	.84
정서적 단절	20, (21), (22), (23), (24), (25)	6	.77
가족퇴행	26, 27, 28 ,29, 30, 31, 32, (33),(34), (35), (36)	11	.89
전체		36	.86

( ) 문항은 역채점

### 3)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

이 연구에서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측정은 Barnes & Olson(1982)의 PACI(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를 민혜영(1990)이 번안한 자녀용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는 부-자녀간 의사소통 20문항과 모-자녀간 의사소통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 개방형 의사소통과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 문제형 의사소통 2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방식은 5점 척도로 되어있고, 개방형 의사소통의 합계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긍정적이며, 문제형 의사소통의 합계점수가 높을수록 역기능적이고 문제적임을 의미한다. 즉 개방형 의사소통은 정확하고 모순되지 않는 메시지를 보내고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에서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는 의사소통 유형이며, 이에 반해 문제형 의사소통은 일치되지 않고 모순된 메시지를 보내며, 부정적인 발언을 하며 의사소통을 주저하고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역기능

적 방식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과 문제형의 의사소통 점수를 각각 채점하여 각 변인간의 관계분석 및 매개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이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개방형 의사소통이 .93이었고, 문제형 의사소통은 .85였다. 척도의 구성내용은 표 4 와 같다.

표 4. 부모자녀 의사소통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아버지 개방형	1, 3, 6, 7, 8, 9, 13, 14, 16, 17	10	.93
아버지 문제형	2, 4, 5, 10, 11, 12, 15, 18, 19, 20	10	.80
어머니 개방형	1, 3, 6, 7, 8, 9, 13, 14, 16, 17	10	.92
어머니 문제형	2, 4, 5, 10, 11, 12, 15, 18, 19, 20	10	.83
전체		40	

###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에 대해 SPSS 18.0과 IBM SPSS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 19.00 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 2) 각 변인들(한국적 부모자녀관계, 부모자녀 의사소통, 자아분화)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3) 한국적 부모자녀관계와 자아분화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 본 연구에서 세운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 V. 연구결과

### 1. 주요 변인들간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한국적 부모자녀관계(이하 명칭은 한국적 부모자녀관계의 특성을 측정한 개념이자 본 연구의 측정도구인 부자유친성정으로 한다), 부모자녀 의사소통, 자아분화의 기술 통계치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상분포조건이 충족되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정상분포조건은 2미만의 편포도와 4미만의 첨도를 가지는 것이다(Hong, Malik & Lee, 2003).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의 편도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정상분포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변인간의 평균 및 표준편차, 상관관계 결과는 표 5 와 같다.

주요변인간의 상관관계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부자유친성정과 자아분화는 정적인 상관관계( $r=.644, p<.01$ )를 나타냈다. 특히 부자유친성정의 하위변인인 일체감과 헌신성은 자아분화의 하위변인인 정서단절, 가족퇴행 간에 높은 정적 상관관계( $r=.514\sim.683, p<.01$ )를 보였고, 가족투사와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r=.235, p<.01$ ). 이는 자녀가 부모와 정서적인 유대감과 친밀감, 부모의 헌신정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녀의 자아분화 수준이 높고, 특히 부모와 일체감이 높을수록 가족투사, 정서단절, 가족퇴행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즉 자녀가 부모의 미분화 특성이나 부부문제가 투사되는 정도가 낮고 자녀 자신과 분리하는 정도가 높아, 부모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적게 경험함으로써 자녀의 자존감과 불안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부모자녀 갈등관계 및 미해결된 애착문제로 인해 부모의 중요성을 부정하거나 부모로부터 스스로 위축, 고립, 정서적으로 단절하려는 경향성이 낮으며 가족들이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할 때나 스트레스에 직면할 때 역기능적이고 퇴행적 방법보다 건설적 방법으로 상호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아버지, 어머니 각각의 부자유친성정과 자아분화의 하위요인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부자유친성정의 일체감 요인이 자아분화의 하위요인 중 자아통합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 $r=.138\sim.650$ ,  $p<.01$ ). 정서단절과 가족퇴행 요인은 아버지의 부자유친성정 ( $r=.491\sim.650$ ,  $p<.01$ )이 어머니 부자유친성정 ( $r=.394\sim.500$ ,  $p<.01$ )보다 조금 더 정적인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 및 어머니와의 일체감, 헌신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녀는 지적체계와 정서체계를 적절히 분리할 수 있고, 가족투사,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어머니보다 아버지와 일체감과 헌신성을 지각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정서적 단절이 낮고 중요한 의사결정과 스트레스에 대처시 건설적인 방법을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부자유친성정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상관관계를 보면, 부자유친성정의 하위변인인 일체감과 헌신성은 부모와의 개방형 의사소통과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 ( $r=.521\sim.727$ ,  $p<.01$ )를 나타냈고, 반면 문제형 의사소통과는 부적인 상관관계 ( $r=-.398\sim.571$ ,  $p<.01$ )를 나타냈다. 이는 자녀가 부모와 정서적 유대감, 밀착도, 부모의 헌신정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부모 자녀간에 정확하고 모순되지 않는 메시지를 보내고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에서 기능적이며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는 개방적인 의사소통 방식으로 상호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자녀가 정서적 유대감, 밀착도, 헌신정도를 낮게 지각할수록 부모자녀 간에 일치되지 않고 모순된 메시지를 보내며, 부정적이고 원활하지 않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자아분화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개방형 의사소통은 자아분화의 하위요인 중 가족투사, 정서단절, 가족퇴행과 정적인 상관 ( $r=.174\sim.640$ ,  $p<.01$ )을, 문제형 의사소통은 자아분화의 하위요인 중 자아통합을 제외한 인지적기능 대 정서적기능, 가족투사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인 상관관계 ( $r=-.239\sim-.383$ ,  $p<.01$ )를 나타냈고, 정서단절과 가족퇴행과는 높은

부적인 상관관계( $r=-.442\sim-.567$ ,  $p<.01$ )를 나타냈다. 즉 부모자녀 간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수록 자녀는 부모로부터 부모자신의 미분화 특성이나 부부문제가 투사되는 정도, 부모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의 영향을 덜 받을 것이고 부모의 중요성을 부정하거나 부모로부터 고립되려고 하는 정서적 단절이 낮으며 가족들이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할 때나 스트레스에 직면할 때 건설적인 방법으로 상호작용한다는 의미이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와 문제형 의사소통으로 상호작용 할수록 자녀의 지적체계와 정서체계의 분화정도가 낮고 부모자신의 미분화 특성이나 부부문제가 투사되는 정도, 부모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자주 경험한다고 지각하며, 부모의 중요성을 부정하거나 위장된 독립, 부모로부터 고립되려고 하는 정서적 단절 경향이 높으며 가족들이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할 때나 스트레스에 직면할 때 역기능적인 방법으로 대처한다고 볼 수 있다.

표 5. 측정변인간 상관 및 기술통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 부자유친성정	1																
2. 부모 일체감	.965**	1															
3. 부모 헌신성	.943**	.823**	1														
4. 부 일체감	.847**	.884**	.716**	1													
5. 부 헌신성	.855**	.759**	.891**	.820**	1												
6. 모 일체감	.794**	.815**	.686**	.450**	.434**	1											
7. 모 헌신성	.777**	.663**	.842**	.387**	.505**	.786**	1										
8. 자아분화	.644**	.666**	.550**	.611**	.522**	.515**	.425**	1									
9. 인지정서	.129*	.145**	.097*	.138**	.099*	.105*	.067	.498**	1								
10. 자아통합	-.029	-.034	-.019	-.021	-.020	-.040	-.014	.160**	-.023	1							
11. 가족투사	.235**	.287**	.145**	.232**	.115*	.260**	.139**	.596**	.279**	-.029	1						
12. 정서단절	.596**	.613**	.514**	.542**	.491**	.500**	.394**	.692**	.131**	-.105*	.256**	1					
13. 가족퇴행	.687**	.683**	.622**	.650**	.599**	.500**	.470**	.824**	.190**	-.020	.263**	.561**	1				
14. 부 개방의사	.690**	.727**	.575**	.822**	.662**	.370**	.306**	.588**	.139**	-.044	.174**	.557**	.640**	1			
15. 부 문제의사	-.529**	-.571**	-.422**	-.666**	-.495**	-.266**	-.214**	-.560**	-.239**	.049	-.251**	-.426**	-.567**	-.654**	1		
16. 모 개방의사	.590**	.597**	.521**	.318**	.327**	.746**	.601**	.502**	.120**	-.017	.232**	.514**	.466**	.387**	-.216**	1	
17. 모 문제의사	-.483**	-.512**	-.398**	-.298**	-.262**	-.609**	-.444**	-.583**	-.293**	-.013	-.383**	-.442**	-.469**	-.289**	.396**	-.630**	1
M	159.52	86.69	72.83	40.89	34.32	45.79	38.50	104.27	19.34	16.20	17.85	17.05	33.81	31.82	28.90	38.41	26.43
SD	23.59	13.79	10.90	8.93	6.81	7.22	5.74	11.84	3.28	2.58	3.66	3.62	6.20	8.73	6.75	7.31	6.99
왜도	-.55	-.57	-.61	-.66	-.74	-.78	-.80	-.29	-.26	.15	-.36	-.61	-.41	-.28	.28	-.62	.34
첨도	.27	.23	.26	.03	.62	.34	.29	-.16	.01	.14	-.36	.47	-.33	-.37	-.24	.62	.26

\* $p < .05$ , \*\* $p < .01$

## 2. 한국적 부모자녀관계(부자유친성정)와 자아분화의 관계에서 부모 자녀 의사소통의 매개모형 검증

한국적 부모자녀관계(이하 명칭은 한국적 부모자녀관계의 특성을 측정된 개념이자 본 연구의 측정도구인 부자유친성정으로 한다), 부모자녀 의사소통, 자아분화가 서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부자유친성정과 자아분화 사이를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적으로 지지하는 연구모형은 한국적 부모자녀관계(부자유친성정)와 자아분화 관계를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부분매개하는 모형이며, 한국적 부모자녀관계(부자유친성정)와 자아분화 관계를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완전매개하는 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매개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검증하고 매개경로를 검증하기 위해서 IBM SPSS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 19.0 을 사용하여 구조모형 방정식 검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단일평가 방법과 경쟁모형방법이 있다. 단일평가방법은 하나의 모형을 제시하는 것으로 수정지수(MI : Modification Index)와 CR(Critical Ratio) 값을 고려하여 모형을 확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경쟁모형방법은 관련 이론과 기존 연구를 토대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다른 이론이나 기타 문헌에서의 반박주장 및 간명도의 원리 등에 따라 경쟁모형을 설정한 후 이 둘 간의 비교를 통해 자료와 잘 맞는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는 것이다(배병렬, 2007; Joreskog & Sorbom, 1993). 본 연구에서는 경쟁모형방법을 통해 한국적 부모자녀관계(부자유친성정)와 자아분화의 관계에 있어 부모자녀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의 그림 2 와 그림 3 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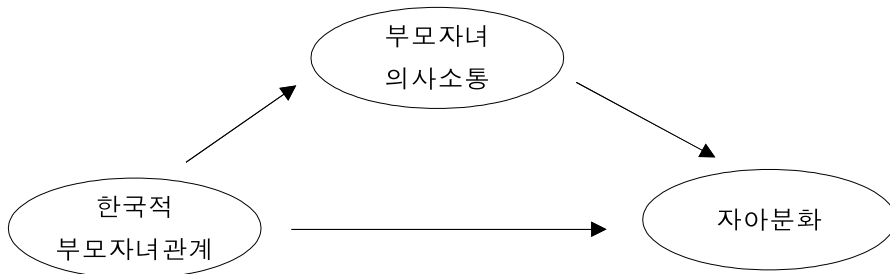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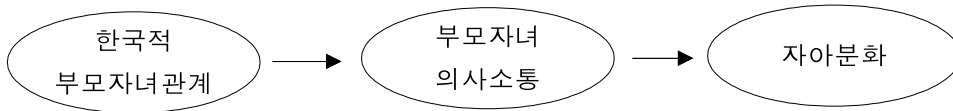


그림 3. 경쟁모형(완전매개모형)

### 1) 모형검증

$\chi^2$  검증은 경쟁모형이 연구모형에 내포(nested)되어 있는 경우 모형비교를 위한 것으로, 각 모형들의  $\chi^2$ 값과 자유도의 증가 혹은 감소에 따른 유의도 수준을 비교하여 최종모형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이 때  $p < .05$  유의도 수준에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이 차이가 없다고 영가설을 기각하기 위해서는 자유도 1의 차이 시  $\chi^2$ 값에서 3.84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 두 모형간의  $\chi^2$  차이가 유의미하다면 두 모형 간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을 기각하고 자유도가 작은 모형을 선택하게 된다. 두 모형간의  $\chi^2$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다면 두 모형이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럴 때에는 ‘간결의 원칙’에 의해 더 간단한 모형 즉, 자유도가 더 큰 모형이 선호된다(배병렬, 2007).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특정모형이 실제 자료와 부합되는 정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chi^2$  값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chi^2$  검증은  $F \times (\text{표본크기} - 1)$ 의 값을 통해 결정되므로 표본 크기에 민감하다(김주환 외, 2009). 즉, 표본크기가 클수록 모형이 쉽게 기각당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chi^2$ 값과 자유도에 더하여  $\chi^2$  검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적합도 지수들을 사용하였다. 사용한 적합도 지수들은 GFI, CFI, TLI, RMSEA로 총 4가지이다. GFI(Goodness-of-Fit-Index)는 원래의 자료와 분석을 통해 도출된 자료간의 차이의 비율에 기초한 것이다. 보편적으로 권장되는 수용수준은 0.90이상이고 표본크기가 200이상이면 제안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FI(Comparative Fit Index)는 자유도에 따른 오차를 감소시켜 그 영향을 배제하고 모형을 비교하는 비교 부합치로 0.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갖는 것으로 본다. TLI(Turker-Lewis Index)는 기초모형에 대해 제안모형과 대안모형의 비교를 위해 모형의 간명도(자유도)를 결합하여 측정된 것으로, 권장 수용기준은 0.90이상이다.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모형을 표본이 아닌 모집단에서 추정할 때 기대되는 적합도 지수로 <.05면 좋은 적합도, <.08이면 괜찮은 적합도, <.10이면 보통 적합도, >.10이면 나쁜 적합도로 본다(김주환 외, 2009; Browne & Cudeck, 1993).

본 연구에서는 한국적 부모자녀관계(부자유친성정)와 자아분화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부-자녀 의사소통과 모-자녀 의사소통으로 나누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비교하였다.

## 2) 부-자녀 의사소통 매개모형검증

측정변인의 오차를 고려하여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모두 같은 잔차 간의 연

결을 하였고,  $\chi^2$ 와 자유도, 적합도 지수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6 과 같다.

표 6.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모형	$\chi^2$	df	GFI	CFI	TLI	RMSEA
연구모형	102.4	24	.954	.961	.942	.083
경쟁모형	103.7	25	.954	.961	.944	.082

부분매개모형인 연구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인 경쟁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해보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모두 GFI, CFI, TLI가 .90이상, RMSEA가 .10이하로 두 모형 모두 좋은 적합도 지수들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두 모형은 각기 다른 모형으로 두 모형을 모두 채택할 수 없으며, 두 모형 중 어떤 모형이 더 적절한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 두 모형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경쟁모형이 연구모형에 내포(nested)되어있는 관계로 이에  $\chi^2$ 값과 자유도를 비교하여 보았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자유도 차이는 1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유의한 차이를 위해서는 3.84이상의  $\chi^2$  차이가 있어야 한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chi^2$  차이 값은 1.3 으로  $\alpha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chi^2$  차이 검증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면 “간결의 원칙”에 의하여 더 간단한 모형 즉, 자유도가 더 큰 모형을 선택하게 되므로 완전매개모형인 경쟁모형이 채택되었다. 이는 아버지 부자유친성정이 자녀의 자아분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부-자녀 의사소통을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만을 주게 되는 완전매개를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버지 부자유친성정과 자아분화의 관계에서 부-자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수한 모형으로 나타난 경쟁모형을 대상으로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에 다른 경로계수 결과는 표 7 과 같다.

표 7. 경쟁 모형(완전매개모형)의 경로 검증 결과

경로	모수추정치	S. E.	C. R.	표준화 계수
부 의사소통 ← 부자유친성정	1.281	.059	21.762***	.907
자아분화 ← 부 의사소통	.081	.029	4.502***	.866

\*\*\*  $p < .001$

경로계수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 부자유친성정에서 부-자녀 의사소통으로 가는 경로와 부-자녀 의사소통에서 자아분화로 가는 경로는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아버지 부자유친성정에서 자아분화로 가는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즉, 아버지 부자유친성정은 부-자녀 의사소통을 통해서만 자아분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자녀 의사소통이 아버지 부자유친성정과 자아분화 사이를 완전매개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아래 그림 4 에 경로계수를 표시하였다.

추가적인 방법으로 경쟁 모형에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sobel test 를 실시하여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살펴보았다. 독립변인인 부자유친성정과 종속변인인 자아분화 사이에서 매개변인인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Zab 값이 4.406 으로 나와, 이 값은  $p < .001$  수준에서 자기개념이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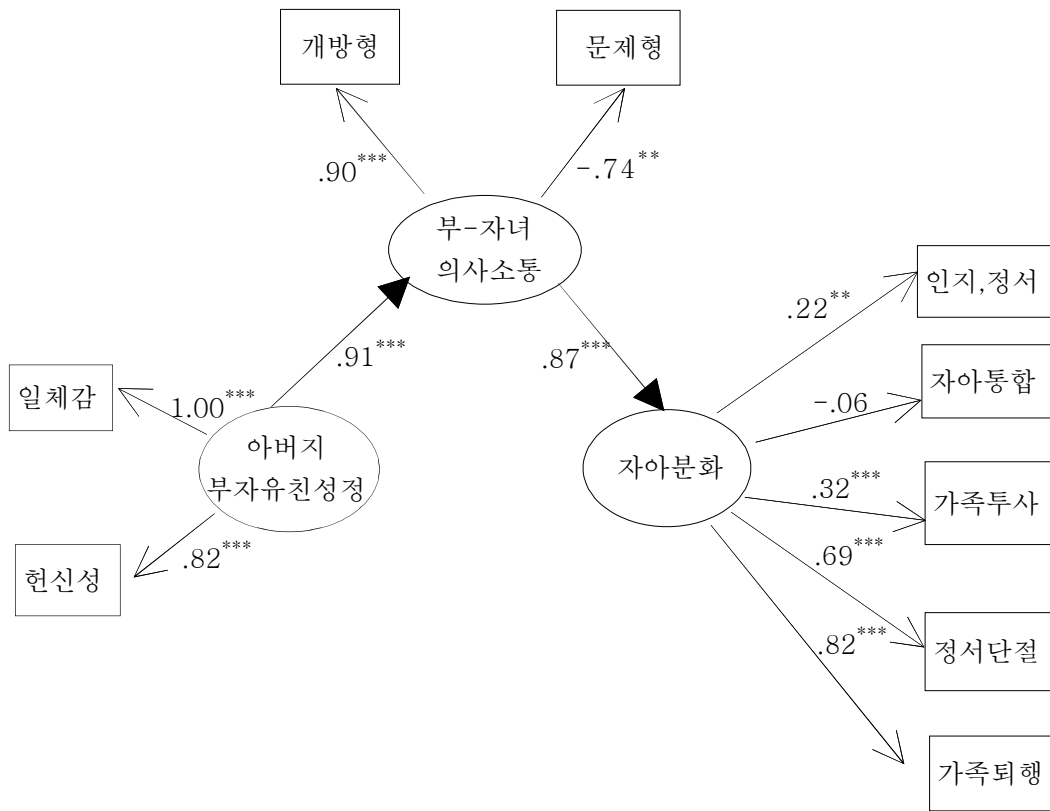


그림 4. 경쟁모형(완전매개 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영향력의 크기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유의하게 경로계수가 입증된 경로의 직접효과(direct effect)와 간접 효과(indirect effect)를 알아보았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표 8 에 제시하였다. 변인들의 전체효과는 .907에서 .785 까지 나타났으며, 아버지 부자유친성정에서 부-자녀 의사소통으로 가는 경로의 전체효과는 .907, 직접효과는 .907 로, 독립변인인 아버지 부자유친성정이 매개변인인 부-자녀 의사소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녀 의사소통에서 자아분화로 가는 경로의 전체효과는 .866 으로 나타났으며 직접효과는 .866 으로 매개변인인 부-자녀 의사소통 역시 종속 변인인 자아분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독

립변인인 부자유친성정은 종속변인인 자아분화에 미치는 전체 효과는 .785이며 간접 효과는 .785로 이는 아버지 부자유친성정이 자아분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접 효과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결과는 부자유친성정은 매개변인인 부-자녀 의사소통을 매개로 하여 종속변인인 자아분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표 8. 변인들간의 직접, 간접 효과

경로	전체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부-자녀의사소통 ← 부자유친성정	.907	.907	.000
자아분화 ← 부자유친성정	.785	.000	.785
자아분화 ← 부-자녀의사소통	.866	.866	.000

### 3) 모-자녀 의사소통 매개모형 검증

부-자녀 의사소통 모형검증 절차와 마찬가지로 측정변인의 오차를 고려하여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모두 같은 잔차 간의 연결을 하였고,  $\chi^2$ 와 자유도, 적합도 지수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표 9. 연구모형과 경쟁 모형의 적합도

모형	$\chi^2$	df	GFI	CFI	TLI	RMSEA
연구모형	116.3	24	.944	.945	.917	.090
경쟁모형	116.5	25	.944	.945	.921	.088

부분매개모형인 연구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인 경쟁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해보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모두 GFI, TLI, CFI 가 .90 이상, RMSEA 도 수용준거인 .10 이하의 값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모형으로, 두 모형 간 적합도 지수의 차이가 만족할 만큼 크지 않았다. 이에 서로 내포관계에 있는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차이 규명을 위해  $\chi^2$  값을 비교하였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chi^2$  차이 값은 0.9로  $\alpha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chi^2$  차이 검증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면 “간결의 원칙”에 의하여 더 간단한 모형 즉, 자유도가 더 큰 모형을 선택하게 되므로 완전매개모형인 경쟁모형이 채택되었다.

이는 어머니 부자유친성정이 자녀의 자아분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모-자녀 의사소통을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만을 주게 되는 완전매개를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 부자유친성정과 자아분화의 관계에서 모-자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수한 모형으로 나타난 경쟁모형을 대상으로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에 다른 경로계수 결과는 표 10 과 같다.

표 10. 경쟁 모형(완전매개모형)의 경로 검증 결과

경로	모수추정치	S. E.	C. R.	경로계수
모 의사소통 ← 모 부자유친성정	1.189	.066	18.086***	.857
자아분화 ← 모 의사소통	.100	.022	4.628***	.791

\*\*\*  $p < .001$

경로계수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 부자유친성정에서 모-자녀 의사소통으로 가

는 경로와 모-자녀 의사소통에서 자아분화로 가는 경로는 유의하게 나타났고, 어머니 부자유친성에서 자아분화로 가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즉, 어머니 부자유친성은 모-자녀 의사소통을 통해서만 자아분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자녀 의사소통이 어머니 부자유친성과 자아분화 사이를 완전매개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그림 5 에 경로계수를 표시하였다.

추가적인 방법으로 경쟁 모형에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sobel test 를 실시하여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살펴보았다. 독립변인인 어머니 부자유친성과 종속변인인 자아분화 사이에서 매개변인인 모-자녀 의사소통의  $Z_{ab}$  값이 4.407 로 나와, 이 값은  $p < .001$  수준에서 모-자녀 의사소통이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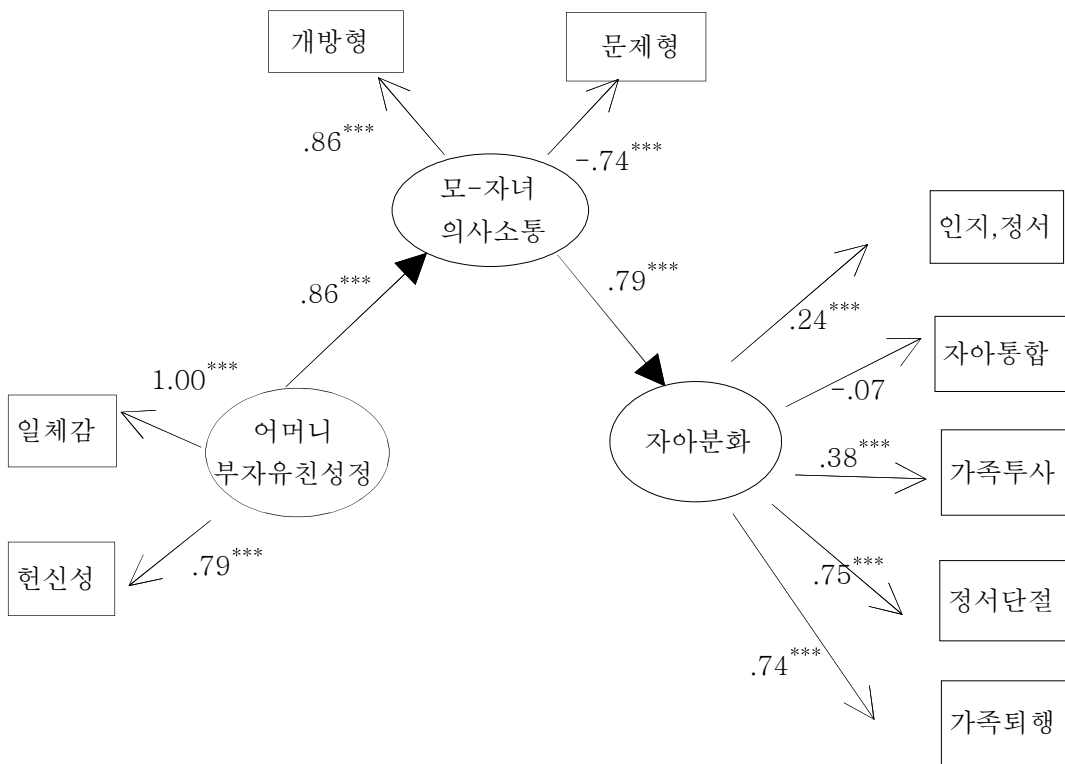


그림 5. 경쟁모형(완전매개 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영향력의 크기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유의하게 경로계수가 입증된 경로의 직접효과(direct effect)와 간접 효과(indirect effect)를 알아보았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표 11에 제시하였다. 변인들의 전체효과는 .857에서 .791까지 나타났으며, 어머니 부자유친성정에서 모-자녀 의사소통으로 가는 경로의 전체효과는 .857, 직접효과는 .857로, 독립 변인인 어머니 부자유친성정이 매개 변인인 모-자녀 의사소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자녀 의사소통에서 자아분화로 가는 경로의 전체효과는 .791로 나타났으며, 직접효과는 .791로 매개변인인 모-자녀 의사소통 역시 종속변인인 자아분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독립변인인 어머니 부자유친성정은 종속변인인 자아분화에 미치는 전체효과는 .678이며 간접 효과는 .678로 이는 어머니 부자유친성정이 자아분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접 효과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 부자유친성정은 매개변인인 모-자녀 의사소통을 매개로 하여 종속변인인 자아분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표 11. 변인들간의 직접, 간접 효과

경로	전체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모-자녀의사소통 ← 모 부자유친성정	.857	.857	.000
자아분화 ← 모 부자유친성정	.678	.000	.678
자아분화 ← 모-자녀의사소통	.791	.791	.000

## VI. 논의

### 1. 연구의 결과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적인 부모자녀관계와 자아분화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진행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적 부모자녀관계와 자아분화, 부모자녀 의사소통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자녀관계와 자아분화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특히 부모자녀관계의 하위요인인 일체감, 헌신성은 자아분화의 하위요인인 정서단절, 가족퇴행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족투사와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한국적인 부모자녀관계의 특성인 부자유친성정과 자녀의 자아분화가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들(최인재, 2004; 배혜영, 2005; 박영호, 2007) 및 부모자녀관계를 가족 내 정서적 유대감과 자율성의 개념인 가족의 응집성 정도로 나누어 자녀의 자아분화의 상관을 보여준 선행연구 결과들(김정택, 심혜숙, 1993; 박수영, 이재연, 2005; 이운기, 2005; 이지민, 2010) 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즉 부모와의 밀착도가 높고 정서적인 유대관계가 매우 친밀하고 깊을수록, 부모의 헌신정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녀의 자아분화 수준은 높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자아분화의 두 가지 측면인 개인 내적측면과 관계적 측면 중 가족퇴행, 정서단절, 가족투사와 같은 관계적 측면의 분화가 인지적기능 대 정서적기능이나 자아통합과 같은 개인내적 측면보다 정적 상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 정서적인 유대감과 친밀감이 높으며 심정적 교류가 빈번하고, 부모에 대한 희생과 헌신정도를 높게 지각하는 자녀일수록 개인의 지적체계와 정서체계의 분리수준이 높고 가족들이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할 때나 스트레스에 직면할 때 보다 기능적이고 건설적 방법으로 상호작용 하고 있으며 부모의 중요성을 부정하거나 부모로부터 스스로

위축, 고립, 친밀관계에서의 정서적 단절 경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문화에서 부모자식간의 동일체감, 부모가 자식을 보호하고 아끼며 지지, 희생하는 정도를 자녀가 부모와 친밀함, 애씀, 고마움, 헌신으로 지각하여 자녀의 안정적인 심리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에서, 이러한 부모자녀관계 지각은 서구의 관점에서 보면 과보호 및 지나친 밀착관계로 비취질 수 있으나, 우리 문화에서 청소년들에게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는 부모의 관심 및 돌봄과 관련되는데 반해 미국 청소년들에게는 부모의 적대감이나 거부와 관련된다는 보고가 있다(Rohner & Pettengil, 1985). 또한 서구 연구에서는 원가족 으로부터의 물리적, 정서적으로 얼마나 분리되었는지의 정도가 개인의 성숙의 지표(Hsu, 1985)이며, 부모자녀간의 밀착과 융합이 불안을 가져오고 그것이 자녀와의 부정적 의사소통을 하는 것과 관계가 된다고 보고되고(Benson 등 1993) 있으나, 김동직(1999)의 연구에서 독일 대학생의 경우 개별성이 관계성보다 심리적 적응을 더 잘 설명하고 한국 대학생들은 개별성보다 관계성이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설명변인이라고 하였다. 즉 문화보편적으로 가족이나 부모자녀 간 친밀관계와 유대는 중요한 요소이나 친밀관계의 정도와 질적 측면, 그리고 관계의 유지에 있어 문화 간 차이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심리적, 사회적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 개별성과 일체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을 때, 한국문화에서 부모자녀 관계를 통해 혈육의식, 측은지정, 동일체감을 바탕으로 한 부모자녀 간 심정적 상호작용은 관계성을 통한 안정적인 개별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적 부모자녀관계와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관계에서는 부모자녀관계 하위 요인인 일체감과 헌신성이 부모와의 개방형 의사소통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문제형 의사소통과는 부적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자녀가 부모와 정서적 유대감, 친밀감, 동일체적인 감정과 부모의 마음 쓰는 정도를 강하게 지각할수록 부모자녀 간 기능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

으로 상호작용 한다는 의미이다. 의사소통은 부모자녀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감정, 느낌, 생각, 태도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개인의 신념과 인지적 책략이 반영된다고 볼 수 있는데 부모자녀 관계를 공고히 하고 상호소통의 수단으로 의사소통 방식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자아분화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개방형 의사소통은 자아분화의 하위요인 중 가족투사, 정서단절, 가족퇴행과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고, 문제형 의사소통은 자아분화의 하위요인 중 자아통합을 제외한 인지적기능 대 정서적기능, 가족투사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정서단절과 가족퇴행과는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부모와 자녀 간에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수록 자녀는 부모의 갈등이나 원가족 문제가 투사된 정도가 낮아 부모와 적절한 정서적 애착과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며 가족들과 보다 건설적인 방법으로 문제나 스트레스를 처리해 나갈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부모자녀 간 문제형 의사소통이 이루어질수록 자녀는 부모문제의 투사정도, 부모와의 정서적 단절 및 고립, 역기능적인 문제해결 방식으로 기능할 경향이 높아지고 이 외에도 지적체계와 정서적 체계가 덜 분리되어 감정과 사실의 분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 부모와의 의사소통방식과 자아분화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유혜경, 2004; 최인재, 2004; 김갑숙, 전영숙, 2009)들과 부모자녀 관계를 가족응집성 맥락으로 부모자녀 의사소통과의 관련성을 본 연구(김진희, 1989; 김윤희, 1990; 신영규, 1994; 장사라, 2001)와도 그 결과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하지만 부모자녀관계 측정요인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자아분화의 하위 요인 중 유일하게 자아의 통합요인과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기존 선행 연구에서도 자아통합 요인이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고(이지민, 2010), 청년기 발달적 특징과 함께 관계주의 문화 맥락의 개념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청년기는 다양한 방면에서 발달과업을 이루어 나가며 자신의 정체감을 통합해 나가는 단계이고 부모나 가족, 친구, 동료와 같이 다양한 관계속에서 자신의 신념과 견해를 형성해 나가는 시기이므로

(이규미, 2006), Bowen의 자아분화 개념에서 말하는 자아통합이 진아(solid self)가 발달하여 명확한 신념과 견해, 확신 및 생활 원리로 구성되어 있어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보다 안정적이며 관계 체제의 영향을 잘 받지 않는다는 관점과 상호의존적 관계속에서 자아정체감을 확립해가는 한국의 관점과는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적 부모자녀관계와 자아분화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구조방정식을 통한 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부모자녀관계 하위요인인 일체감과 헌신성은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매개로 하여 자아분화에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인인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부모자녀관계의 일체감 및 헌신성과 자아분화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방식인 완전매개모형에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부모자녀관계 특성이 자아분화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매개로 자아분화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문화에서는 가족구성원간의 결속을 강조하고 관계 속에서 ‘자기’를 지각하고 규정해 나가는 상호의존적, 관계중심적인 부모자녀관계 의식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부모자녀간의 깊고 친밀한 정서적 유대관계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방식에도 영향을 미쳐 자녀의 심리, 사회적 적응을 방해하고 저해하는 작용이 아니라 오히려 적합한 적응양식이라 볼 수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부모자녀관계를 한국적인 문화적 특징을 고려하여 부자유친성정 요인이 자녀의 심리적인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단편적으로 살펴보거나, 자아분화를 매개로 하여 심리, 사회적 적응을 확인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단지 부모자녀간의 깊고 친밀한 정서적 유대 지각이 자녀의 심리적 적응기체에 직접 영향을 주기보다 이 과정에서 부모자녀 간 친밀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정서적 유대를 교감할 수 있는 상호교환 방식으로서의 의사소통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다. 한국문화와 부모자녀관계 특성상 표현되는 언

어적 방식보다 이심전심, 강한 심정적 교류(최상진, 2000)가 좀 더 주요한 측면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지만,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어주는 매개수단이자 자녀의 심리적, 정서적, 행동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문화보편성을 지닌다고 하겠다.

발달의 연속성 관점에서는 초기 부모자녀 관계가 전 생애동안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기본적인 방식을 구성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초기 부모자녀 관계가 발달의 후반기로 이월되어 이후의 모든 관계에도 영향을 끼친다(Ainsworth, 1979; Bowlby, 1989; Sroufe, 1996)고 본다면 관계와 조화를 중요시 하는 우리나라에서 부모와의 관계 지각과 이에 영향을 주고받는 의사소통방식은 자녀의 성숙, 심리적 적응기제 뿐 아니라 대인관계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 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수도권에 소재한 전문대학 이상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연구대상자의 연령이나 학력, 발달특성 및 지역에 따라 부모자녀관계의 지각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 성인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대상으로 본 연구 결과를 교차 타당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모든 자료는 자기보고형식에 의해 얻어졌기 때문에, 설문 응답자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려는 경향으로 응답했을 가능성,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해 응답하거나 기억을 토대로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델을 적용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는데 변인간의 인과 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장기간의

정교한 중단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는 부모와 자녀관계를 측정하는 다양한 연구에서 오랜 기간 사용 되어온 척도이기는 하나, 표현된 언어적 메시지 외에도 비언어적인 메시지까지도 중요하게 내포하는 심정주의, 관계주의의 우리나라 의사소통 문화를 반영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부모자녀 관계나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을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개발될 필요성이 있겠다. 또한 자아분화의 척도에서 자아분화의 하위 요인 중 자아의 통합요인은 선행 연구에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고(이지민, 2010), Bowen의 자아분화 개념에서 말하는 자아통합이 진아(solid self)가 발달하여 명확한 신념과 견해, 확신 및 생활 원리로 구성되어 있어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보다 안정적이며 관계 체제의 영향을 잘 받지 않는다는 관점과 상호의존적 관계속에서 자아정체감을 확립해가는 한국의 관점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좀 더 한국문화에 맞는 자아분화 척도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의 대상자 대부분이 아버지, 어머니 모두 생존해 계시는 가정의 자녀이고 가족화목도 수준을 매우 화목, 화목, 보통 수준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대학생 자녀들이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점점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한부모 가정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이러한 가정의 부모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국적 부모자녀관계의 특성과 자녀의 자아분화와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한국적 부모자녀관계 특성인 부자유친성정과 자아분화,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 등을 통해서 단편적으로 이들의 관계나 영향은 확인되었지만 한국적 부모자녀관계에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의 관계나 매개역할을 함께 알아본 연구는 거의 없다. 특히 부모자녀관계 지각이 강한 심정교류와 비언어적 메시지까지 중요하게 포함하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의사소통방

식 문화에서도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보편적인 언어적 방식은 부모자녀 관계 뿐 아니라 자녀의 자아성장 및 심리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담의 적용에 있어서는 부모자녀 관계뿐 아니라 친밀한 관계에서의 정서적 단절이나 관계형성의 미숙으로 인한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관계지각 및 의사소통 방식을 개입함으로써 인지적 요소인 개인내적측면 뿐 아니라 관계적 측면에서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도울 수 있으리라 본다.

## 참 고 문 헌

- 금장태 (1998). **퇴계의 삶과 철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고경애, 정민정 (2007). **가족기능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 가족치료학회지, 15(2), 301-320.
- 권미영 (1993).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부적응증상 및 문제행동과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갑숙, 전영숙 (2009). **청소년의 부모-자녀의사소통과 자아분화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회, 14(4), 79-94.
- 김동직 (1999). **문화적 맥락에서 본 개별성, 관계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보현 (1999). **고등학생의 자아분화 및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일, 김남희 (200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정체감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1), 75-89.
- 김소영 (1996). **가족체계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연, 김득성 (1993). **부부의 응집 및 적응과 의사소통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30-99.
- 김수현 (2003).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과 친구집단의 문제행동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수 (2003).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영유아 발달수준의 차이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의철 (2000). **토착심리학과 문화심리학의 과학적 토대**. 한국심리학회지, 6(3), 특집호, 1-24.
- 김의철 (2003). **한국 사회에서의 청소년 문제행동 : 청소년 발달에 대한 문화**

- 적 이해: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14-215
- 김인아 (2007). **중학생의 불안, 모-자녀 의사소통, 방어기제와 적응문제의 관계모형: 성별 및 인지양식별 차이**,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재은 (1974). **한국가족의 심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정택, 심혜숙 (1993). **자아분화 개념을 통한 Bowen의 정신역동적 가족치료의 특징**. 한국 가족치료학회지, 1(1), 31-45.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논문쓰기**. 커뮤니케이션 북스.
- 김혜은, 이진순 (2006). **한국과 독일 청소년의 정서적 자율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9(2), 21-40.
- 김홍규 (2006). **초등학생의 학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유형과 문제행동과의 관계**. 미래교육연구, 참마음교육학회, 13(1), 57-79.
- 민혜영 (1991). **Circumplex Model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청소년 자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금희 (1986).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화합도와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과 청소년의 불안수준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명석 (1993). **동과 서**. 서울: 탐구당.
- 박수영 (2005). **아동의 부자유친성정과 자아분화 및 대인관계 성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6(6), 189-200.
- 박수원 (2003). **가족체계유형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순길 (2004).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적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유화 (2001). **대학생의 가족응집성 및 자아분화수준과 대학생활 적응도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신, 김의철 (2000). **부모-자녀관계 변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38(2), 109-146.
- 박영신, 김의철 (2003). **한국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의 영향.**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10(1), 139-165.
- 박영호 (2006). **한국적 부모-자녀관계가 대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 : 부자유친성정, 애착, 우의의식, 자아분화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영 (2002). **애착이론과 자아분화이론의 유사성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방문희 (1992).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대인관계 성향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방희정 (2000). **한국사회에서의 부모자녀 관계 특성에 대한 발달심리학적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6(3), 41-65.
- 배병렬 (2007). **Amos 17.0 구조방정식의 모델링 - 원리와 실제.** 도서출판 청람.
- 배혜영 (2005). **부자유친성정과 자아분화가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혜리 (1999). **현대 부모-자녀관계와 조선시대 부모-자녀관계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19(2), 59-76.
- 송은진 (2011). **가족변인에 따른 청소년의 의사소통유형과 자아분화수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양희 (1988). **고등학교 남학생 가족의 기능적특성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운선 (2008).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체계 유형 및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5(5,) 23-49.

- 오동철 (1999). **부모자녀 관계와 학업성취감 및 일탈행동에 대한 분석**.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호택, 이민규 (1987).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스트레스**.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6(1), 22-32.
- 유혜경 (2004). **부모양육태도 및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남자 중학생 자아분화 수준과의 관계**. 호서대학교 여성문화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숙 (1999).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자녀간 의사소통방식과 아동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장주 (2002). **부자유친성정 척도의 제작과 타당화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지민 (2010). **가족건강성, 자아분화, 대인관계와 대학생 우울 간의 관계구조**. 한국상담학회: 상담학연구, 11(3), 1271-1287
- 이희자, 김경원 (2000).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9(3), 283-295.
- 이혜숙 (1992).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성숙 (2004). **한국문화에서의 상담의 초점 '개인중심' 대 '관계중심'**. 제5회 현실역동상담 학술세미나 자료집, 한국문화와 상담, 23-45.
- 장휘숙 (2007). **전생애 발달**. 박영사
- 전귀연 (1993).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및 가족체계유형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정갑순, 박영신, 김의철 (2002). **학업성취과정에 대한 분석: 부모-자녀관계, 학업성취효능감과 과거성취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 2002, 315-320.
- 정명희 (1987).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계연구: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성심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영숙 (1994). **어머니에 대한 배려가 자기통제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은영, 신혜원 (2009). **가족체계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또래 상호 작용**.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3), 239-267.
- 정혜정, 조은경 (2007). **한국형 자기분화 척도 개발과 타당성에 관한 연구**. 한국 가족치료학회지, 15(1), 19-46.
- 조명희, 박수선 (1999). **자아분화수준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서원대학교 학생 생활연구소, 17(1), 81-95.
- 제석봉 (1989). **자아분화의 역기능적 행동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상진, 김혜숙, 유승엽 (1994). **부자유친성정과 자녀에 대한 영향력**,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학술발표 논문초록, 65-82.
- 최상진 (1999b). **한국인의 마음**. 최상진, 윤호균, 한덕웅, 조공호, 이수원(편). 동양심리학-서구심리학에 대한 대인모색, 377-479. 서울 지식산업사.
-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상진, 최인재 (2000).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이 문제대응방식, 스트레스,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정(情), 우리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 2000, 174-175.
- 최인재 (2004). **부자유친성정이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관련 정서에 미치는 영향 : 자아분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인재 (2005).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의 문화적 특징-부자유친 성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1059-1076.
- 최인재 (2006). **한국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문화심리학적 고찰**. 한국상담학회 상담학연구, 7(3), 761-773.

- 최인재 (2006).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구, 한국청소년개발원)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1-102.
- 최인재 (2006).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기 자녀의 자아분화와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682-683.
- 최인재 (2009). **가족체계유형과 청소년의 자아분화 및 심리, 사회적 적응간의 관계-가족응집성의 문화적 특성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6(4), 1-23.
- 최연실 (1996). **청소년자녀기 가족의 가족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외선, 김갑숙, 최선남 (2001). **편부모가족 자녀의 의사소통과 특성불안에 관한 연구**. 한국재활심리학회 재활심리연구, 8(2), 191-207.
- 최윤미 외 공저 (2006). **현대청년심리학**. 학문사.
- 최희량 (1998).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대인문제 성향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영훈, 박은영 (2003). **애착이론과 자아분화이론의 유사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1(1).
- 허동규 (2003). **학생이 지각한 부자유친성정과 사제유친성정 및 청소년비행과의 관계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미선 (2000). **부모의 대부모 애착유형과 부부애착유형 및 자녀의 애착안정성과의 관계**.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lexander, J. F. (1973). **Defensive and supportive communication in normal and deviant familie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40: 223-231.
- Ainsworth, M., Bell, S., & Stayton, D. J. (1971). **Individual differences in strange situation behavior of one-year-olds**. In h. R.

Scaffer(Ed.), The origins of human social relations. London :  
Academic Press.

Ainsworth, M. D. S. (1979). **infant-mother attachment**. American  
Psychologist, 34, 932-937.

Ainsworth, M. D. S. (1989). **Attachments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 709-716.

Azuma, H. (1986). **Why study child development in Japan?** In H.  
Stevenson, H. Azuma & K. Hakuta (Eds.), 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 in Japan(pp. 3-11). New York: W. H. Freeman.

Baber, B. K. (1992). **Family, personality,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69-79.

Barbarin, O. A. (1984). **Measuring basic family processes: Validity and  
reliability of Family Process Scale**. Unpublished manuscript.

Barber, B. K., Olsen, J. E., & Shagle, S. C. (1994). **Association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ontrol and youth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5,  
1120-1136.

Barnes, H., & Olson, D. H.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Baumridnd, D.(1967). **Child care practices anteceding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75, 43-88.

Beaubien, C. O. (1970).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tyle**.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Bell, R. (1982). **Parents-adolescent relationships in families with a  
runaway: Interaction types and the circumplex mode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Berg, I. K. (1993). **Different and same: Family therapy with Asian–America familie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9(1).
- Bowen, M. (1966). **The use of family theory in clinical practice,** *Comprehensive Psychiatry*, 7.
- Bowen, M. (1976). **Theor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P.J. Guerin(Ed.), *Family therapy.* New York : Gardner Press.
- Bowen, M. (1981). **The use of family theory in clinical practice.** In R.J. Green& J.L. Framo (Eds.), *Family therapy : Mayor contributions.* Madison :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Inc.
- Bowen, M. (1982).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 Jason Aronson.
- Bowlby, J. (1958).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9, 350–373.
- Bowlby, J. (1989). **Secure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ronfenbrenner, U. & Mahoney, M. A. (1975). **Influences on human development**(2nd ed.). Hinsdale, III: The Dryden.
- Browne, M. W., Cudeck, R., Bollen, K. A., & Long, J. S. (1993).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 Cambell, E., Adams, G., & Dobson, W. (1984). **Familial correlates of identity formulation in late adolescence; A study predictive utility of connectedness and Individuality in family relation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3(6), 509–525.
- Cushman, P. (1990). **Why the self is empty: Toward a historically situated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y*, 45, 599–611.
- Dolinger, S. J., Preston, L. A., O’Brien, S. P., & DiLalla, D. L. (1996).

- Individuality and relatedness of the self: An autobiographic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1268-1278.
- Feldman, S. S., & Rosenthal, D. A. (1991). **Age expectations of behavioral autonomy in Hong Kong, Australian and American Youth: The influence of family variables and adolescents' value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26(1), 1-23.
- Fine, M. & Hovestadt, A. (1984). **Perception of marriage and rationality by levels of perceived health in the family of origi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0, pp. 193-195
- Foley, L. D. (1979). **An Introduction to family therapy.** NY: Grune & stration.
- Friedman, E. (1991). **Bowen theory and therapy.** In A. S. Gurman & D. P. Kniskern (Eds.), Handbook of family therapy(Vol, II). by Alan S. Gurman and David P. Kniskern. New York: Brunner/Mazel, INC.
- Galvin, K. M., & Brommel, B. J. (1986). **Family communication-cohesion and clang**(2nd ed). IL: Scott, Foresman & Company.
- Gordon, T. (1975).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 Greenberger, E., & Sorensen, A. B. (1974). **Toward a concept of psychosocial maturit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 329-358.
- Greene, G. J., Hamilton, N., & Rolling, M. (1986). **Differentiation of self and psychiatric diagnosis: An empirical study.** Family Process, 8
- Hansen, J. C. & L'Abatte, L.(1982). **Approaches to family Therapy,** N. Y.: Macmillan Publishing Co., Inc.
- Heilburn, A. B. (1973). **Aversive Maternal Control: A Theory of**

**Schizophrenic Development.** New York: Wiley.

- Hoffman, J. A. & Weiss, B.(1987), **Family dynamics and presenting problem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2), pp. 157-163
-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 International difference in work-relater values.** Beverly Hills, CA: Sage.
- Hofstede, G. (1983). **Dimention of national cultures in fifty countries and three relations.** In J. B. Deregowski, S. Dziurawiec & R. C. Annis(Eds.), *Explorations in cross-cultural psychology*. Lisse, Netherlands: Swets Zeitlinger.
- Hollander, C. E.(1983). **Comparative family systems of Moreno and Bowen.** *Journal of Group psychotherapy, Psychodrama and Sociometry*, 36, (1).
- Hus, F. (1985). **The self cross-cultural perspective.** In A. J. Marsella, G. De Vos., & F. L. K. Hsu, *Culture and self*. New York: Tavistock.
- Jöreskog, K. G., & Sörbom, D. (1993). **LISREL 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the SIMPLIS command language** *Scientific Software.*
- Josselson, R.(1988). **Finding herself. Pathway to identity development in woman.** San Francisco Jossey-Bass.
- Kagiticbasi, C. (1990). **Family and socialization in cross-culture perspective: A model of change.** In J. J. Berman (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989. Lincoln, N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Kennedy, C. E. (1971). **Patterns of Parent-Student Communication.** *Journal of Home economics*, 63, 513.

- Kim, U. & Choi, S. C. (1994). Chapter. 11. **Individualism, collectivism and child development: A Korean perspective**. In P. M. Greenfield, & R. Cooking (Eds.), *Cross-cultural roots of minority child development*. 226-257. Hillsdale, N. J.:Lawrence Erlbaum.
- Lee, S. W. (1990). **Koreans social relationship and Cheong space**. Paper presented at the 1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Psycho-cultural perspectives from East and West, Seoul, Korea.
- Lewis J. M. Beavers, W. R., Gossett, J. T., & Philips, V. A. (1976). **No Single Thread: Psychological Health in Family Systems**. New York : Brunner/Mazel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al variation in the self-concept**. In J. Strauss & G. R. Goethals (Eds.), **The self: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New York: Springer-Verlag.
- Moss, D and Billings, A. (1982).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coping resources and processes**. In L. Goldenberg and S. Brenitz(Eds.). *Handbook of stress; Theoretical and Clinical aspects*. New York; Free Press.
- Olson, D. H., Sprenkle, D. H., & Russell, C. S. (1979).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I .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s**. *Family Process*, 18, 3-28.
- Olson, D. H., Russell, C. S., & Sprenkle, D. H. (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 VI.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22, 69-83.
- Parker, G. (1979). **Reported parental characteristics of agoraphobics and social phobics**.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135, 550-560.

- Rodick J. D., Henggeler, S. W., & Hanson, G. L. (1986). **An evaluation of the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and the circumplex model.**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4, 77-87.
- Rohner, R. P., & Pettengill, S. M. (1985).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and parental control among the Korean adolescent.** *Child Development*, 56, 524-528.
- Satir, V. (1972). **People making.** Palo Alto, California; Science and Behavior Books, Inc.
- Satir, V. (1982). **Conjoint Family Therapy.** Palo Alto. CA: Science and Behavior Books Inc.
- Schaefer, E. S. (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 226-235.
- Sroufe, L. A. (1996). **Emotional developmen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ymonds, P. M. (1949). **The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ship.** New York: Bureau of Publication.
- Tamura, T., & Lau, A. (1992). **Connectedness Versus Separateness: Applicability of Family Therapy to Japanese Families.** *Family Process*, 31, 319-340.
- Triandis, H. C.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ent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3), 506-520.
- vygotsky, 1978.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ABSTRACT

###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dolescent Affective Bonding and Self-Differentiation : Mediating effects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Ji-Won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dolescent affective bonding, and self-differentiation and whether this relationship is mediated by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The subjects were 472 College students recruited from the Universities in Metropolitan Seoul and Gyeonggi areas. The Parent-adolescent affective bonding(Bu-Ja-Yu-Chin-Sung-Cheong) scale, self-differentiation scale, an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PACI) scale were administered. In order to verify the hypotheses of the study, the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ere appli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First, correlation analysi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among Parent-adolescent affective bonding, self-differentiation, parent-adolescent open communication whereas Parent-adolescent affective bonding, self-differentiation and parent-adolescent closed communication did negative correlation. Especially, Parent-adolescent affective bonding and parent-adolescent open communication were positive correlated to the variable of a family regression and a emotional discontinuation.

Seco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dolescent affective bonding, and self-differentiation, the full mediation model is more proper for the materials than the partial mediation model. In other words, in Parent-adolescent affective bonding, only the route indirectly affecting self-differentiation through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was meaningful but in Parent-adolescent affective bonding, the route directly affecting self-differentiation was not meaningful.

Finally, based on the finding results, the implication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nd the suggestions for further studies were recommended.

**Key words :** The Korean version of parent-child relationship,  
parent-adolescent affective bonding, self-differentiation,  
Bu-Ja-Yu-Chin-Sung-Cheong,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 부 록

# 설 문 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와 자녀의 성장·발달을 돕는 심리적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여러분의 가족관계와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며 행동하는지에 대해 조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부모자녀관계의 효과적인 상담 및 치료의 기초적인 정보로 제공될 것입니다.

모든 문항에는 정답이 없으며, 좋은 답과 나쁜 답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문지에 있는 모든 문항을 잘 읽고, 평소 여러분의 생각이나 모습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빠진 응답이 있는 질문지는 연구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애써 작성해주신 설문지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설문지는 익명으로 처리되고 철저한 비밀보장이 이루어질 것이며, 학문적 연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본 설문에 도움을 주셔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이 정 윤  
연구자 김 지 원

<부자유친성정 질문지>

☺ 다음은 평소 일상생활 속에서 아버지에게 느꼈던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문항 번호에 빠짐없이 O 표시를 해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힘들 때 아버지는 나로 인해 힘을 얻으신다.	1	2	3	4	5
2	내가 주위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더라도 아버지는 나를 이해해 주신다.	1	2	3	4	5
3	아버지는 나를 존중해 주신다.	1	2	3	4	5
4	아버지는 나를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	1	2	3	4	5
5	아버지가 가깝게 느껴진다.	1	2	3	4	5
6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1	2	3	4	5
7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내 대신 상대에게 미안하다고 말 하실 수 있다.	1	2	3	4	5
8	내가 마음이 좋지 않으면 아버지도 마음 아파하신다.	1	2	3	4	5
9	아버지는 내가 아프면, 밤새라도 간호를 하실 것이다.	1	2	3	4	5
10	아버지는 나를 믿어주신다.	1	2	3	4	5
11	아버지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믿어주시려고 한다.	1	2	3	4	5
12	아버지는 나의 관심사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주신다.	1	2	3	4	5
13	아버지는 날 위해서라면 아버지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실 수 있다.	1	2	3	4	5
14	아버지는 내가 속을 썩이더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1	2	3	4	5
15	아버지는 자기 자신보다 나에게 필요한 일을 더 먼저 생각하신다.	1	2	3	4	5

16	내가 만약 위험한 상황에 놓인다면 아버지는 목숨을 걸고 나를 구할 것이다.	1	2	3	4	5
17	아버지는 내가 잘 되는 일이라면 어떤 힘든 일도 참아내실 것이다.	1	2	3	4	5
18	아버지는 좋은 것이 생기면 나에게 먼저 주시려고 하신다.	1	2	3	4	5
19	아버지에게는 나의 건강과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	1	2	3	4	5
20	아버지를 생각하면 미안하고 죄송한 생각이 든다.	1	2	3	4	5

㉔ 다음은 평소 일상생활 속에서 어머니에게 느꼈던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문항 번호에 빠짐없이 O 표시를 해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힘들 때 어머니는 나로 인해 힘을 얻으신다.	1	2	3	4	5
2	내가 주위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더라도 어머니는 나를 이해해 주신다.	1	2	3	4	5
3	어머니는 나를 존중해 주신다.	1	2	3	4	5
4	어머니는 나를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	1	2	3	4	5
5	어머니가 가깝게 느껴진다.	1	2	3	4	5
6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1	2	3	4	5
7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내 대신 상대방에게 미안하다고 말 하실 수 있다.	1	2	3	4	5
8	내가 마음이 좋지 않으면 어머니도 마음 아파하신다.	1	2	3	4	5
9	어머니는 내가 아프면, 밤새라도 간호를 하실 것이다.	1	2	3	4	5

10	어머니는 나를 믿어주신다.	1	2	3	4	5
11	어머니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밀어주 시려고 한다.	1	2	3	4	5
12	어머니는 나의 관심사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주신다.	1	2	3	4	5
13	어머니는 날 위해서라면 어머니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실 수 있다.	1	2	3	4	5
14	어머니는 내가 속을 썩이더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 하실 것이다.	1	2	3	4	5
15	어머니는 자기 자신보다 나에게 필요한 일을 더 먼 저 생각하신다.	1	2	3	4	5
16	내가 만약 위험한 상황에 놓인다면 어머니는 목숨을 걸고 나를 구할 것이다.	1	2	3	4	5
17	어머니는 내가 잘 되는 일이라면 어떤 힘든 일도 참 아내실 것이다.	1	2	3	4	5
18	어머니는 좋은 것이 생기면 나에게 먼저 주시려고 하신다.	1	2	3	4	5
19	어머니에게는 나의 건강과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	1	2	3	4	5
20	어머니를 생각하면 미안하고 죄송한 생각이 든다.	1	2	3	4	5

<자아분화 질문지: 1-36번>

☺ 다음은 최근 2년간의 여러분의 전반적인 행동, 경험 및 의견을 묻는 문항입니다.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문항 번호에 빠짐없이 O 표시를 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마음 내키는 대로 결정하는 일이 많다.	1	2	3	4
2	나는 말부터 해놓고 나중에 가서 그 말을 후회하는 일이 많다	1	2	3	4

3	나는 비교적 내 감정을 잘 통제해 나가는 편이다.	1	2	3	4
4	나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편이다.	1	2	3	4
5	나는 욕을 하고 무엇이든 부수고 싶은 때가 있다.	1	2	3	4
6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싸움에 잘 말려드는 편이다.	1	2	3	4
7	나는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화를 잘 내는 편이다.	1	2	3	4
8	나는 남이 지적할 때보다 내가 틀렸다고 여길 때 의견을 더 잘 바꾼다.	1	2	3	4
9	나는 대다수 사람들의 의견보다 내 의견을 더 중시한다.	1	2	3	4
10	논쟁이 일더라도 필요할 때에는 내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1	2	3	4
11	내 말이나 의견이 남의 비판을 받으면 바로 바꾼다.	1	2	3	4
12	내 계획이 주의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잘 바꾼다.	1	2	3	4
13	주위의 말을 참작은 해도 어디까지나 내 소신에 따라 결정한 다.	1	2	3	4

☺ 다음은 현재뿐만 아니라, 어린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행동, 경험, 의견을 묻는 문항입니다.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문항 번호에 빠짐없이 ○ 표시를 해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4	자라면서 부모님이 나에게 대해 근심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다.	1	2	3	4
15	부모님은 내가 미답지 못해서 지나치게 당부하는 일이 많았다.	1	2	3	4
16	부모님은 형제들 중 유독 나 때문에 속상해 하신다.	1	2	3	4
17	부모님은 내게만 문제가 없다면 아무 걱정이 없겠다는 말을 많이 하신다.	1	2	3	4

18	내가 처한 상황은 부모님이 전부터 입버릇처럼 말해 오던 그대로이다.	1	2	3	4
19	내 걱정이나 근심은 옛날 부모님이 말씀하시던 그대로이다.	1	2	3	4
20	부모님과 떨어져 살면 대단히 불편할 거라 생각한다.	1	2	3	4
21	가정을 떠나는 것이 독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1	2	3	4
22	나는 부모님 슬하에서 하루 빨리 독립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다.	1	2	3	4
23	부모님과 자주 다투기 보다는 안 보는 것이 상책이다 생각한다.	1	2	3	4
24	나는 자라면서 집을 나가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껴 왔다.	1	2	3	4
25	나는 자라면서 부모님과 별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1	2	3	4
26	내가 자랄 때 우리 가족은 자기 본분을 다했다.	1	2	3	4
27	우리 가족은 심각한 일이 있어도 가족 간에 금은 잘 가지 않는다.	1	2	3	4
28	가족 간에 말썽이 있어도 서로 상의해 가면서 잘 해결해 왔다.	1	2	3	4
29	우리 가정에는 소리를 지르거나 때리고 싸우는 일이 드물다.	1	2	3	4
30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부모님은 차분하게 잘 처리하신다.	1	2	3	4
31	우리 가정은 대체적으로 화목하고 단란한 편이다.	1	2	3	4
32	우리 가족은 각자 의견이 달라도 서로 존중해 주는 편이다	1	2	3	4
33	나는 어릴 때 다른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1	2	3	4
34	우리 가족은 사소한 문제 때문에도 잘 싸운다.	1	2	3	4
35	부모님은 나를 낳았을 뿐 교육에는 별 관심이 없다.	1	2	3	4
36	우리 가족들은 서로에게 별 관심이 없다.	1	2	3	4

### <부모자녀 의사소통 질문지>

☺ 다음은 여러분이 아버지와 대화할 때 느끼거나 행동하는 것에 대한 질문 문항입니다.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문항 번호에 빠짐없이 O 표시를 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아버지께 나의 생각을 말하는 편이다.	1	2	3	4	5
2	때때로 아버지의 말씀이 믿기지 않을 때가 있다.	1	2	3	4	5
3	아버지는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편이다.	1	2	3	4	5
4	내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께 말씀드리기가 때때로 조심스럽다.	1	2	3	4	5
5	우리 아버지는 내가 뻔히 알고 있는 것도 굳이 이야기 해서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편이다.	1	2	3	4	5
6	아버지께서는 내가 어떤 기분 상태인지 잘 짐작하신다.	1	2	3	4	5
7	나는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1	2	3	4	5
8	나에게 고민거리가 생긴다면 어려워하지 않고 아버지와 의논할 수 있다.	1	2	3	4	5
9	나는 아버지께 아버지에 대한 나의 감정을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다.	1	2	3	4	5
10	아버지와 문제가 생기면 나는 말을 하지 않는 편이다.	1	2	3	4	5
11	나는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것이 망설여진다.	1	2	3	4	5
12	나는 아버지께 말대꾸를 하는 편이다.	1	2	3	4	5
13	내가 무엇을 물어보면 아버지는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는 편이다.	1	2	3	4	5
14	아버지께서는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편이다.	1	2	3	4	5
15	아버지께 나의 고민을 의논드리지만 의논드리고 싶지 않은 이야기도 있다.	1	2	3	4	5
16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을 때 어려워하지 않고 아버지께 말씀드릴 수 있다.	1	2	3	4	5
17	나의 속마음을 아버지께 터놓고 말씀드릴 수 있다.	1	2	3	4	5

18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 편이다.	1	2	3	4	5
19	아버지는 나에게 화를 내실 때면 모욕감을 주면서 꾸중하신다.	1	2	3	4	5
20	어떤 사실에 대해 나의 솔직한 감정을 아버지께 이야기하기 어렵다.	1	2	3	4	5

☺ 다음은 여러분이 어머니와 대화할 때 느끼거나 행동하는 것에 대한 질문 문항입니다.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문항 번호에 빠짐없이 O 표시를 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어머니께 나의 생각을 말하는 편이다.	1	2	3	4	5
2	때때로 어머니의 말씀이 믿기지 않을 때가 있다.	1	2	3	4	5
3	어머니는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편이다.	1	2	3	4	5
4	내가 원하는 것을 어머니께 말씀드리기가 때때로 조심스럽다.	1	2	3	4	5
5	우리 어머니는 내가 뻔히 알고 있는 것도 굳이 이야기 해서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편이다.	1	2	3	4	5
6	어머니께서는 내가 어떤 기분 상태인지 잘 짐작하신다.	1	2	3	4	5
7	나는 어머니와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1	2	3	4	5
8	나에게 고민거리가 생긴다면 어려워하지 않고 어머니와 의논할 수 있다.	1	2	3	4	5
9	나는 어머니께 어머니에 대한 나의 감정을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다.	1	2	3	4	5
10	어머니와 문제가 생기면 나는 말을 하지 않는 편이다.	1	2	3	4	5

11	나는 어머니와 이야기하는 것이 망설여진다.	1	2	3	4	5
12	나는 어머니께 말대꾸를 하는 편이다.	1	2	3	4	5
13	내가 무엇을 물어보면 어머니는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는 편이다.	1	2	3	4	5
14	어머니께서는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편이다.	1	2	3	4	5
15	어머니께 나의 고민을 의논드리지만 의논드리고 싶지 않은 이야기도 있다.	1	2	3	4	5
16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을 때 어려워하지 않고 어머니께 말씀 드릴 수 있다.	1	2	3	4	5
17	나의 속마음을 어머니께 터놓고 말씀드릴 수 있다.	1	2	3	4	5
18	어머니께서는 나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 편이다.	1	2	3	4	5
19	어머니는 나에게 화를 내실 때면 모욕감을 주면서 꾸중하신다.	1	2	3	4	5
20	어떤 사실에 대해 나의 솔직한 감정을 어머니께 이야기하기 어렵다.	1	2	3	4	5

◆ 다음 질문은 설문지의 분석에 기초가 되는 개인적 특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귀하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사항에 기입 또는 해당되는 번호에 O표 해주세요.

1. 성별: ① 남(            )            ② 여(            )
2. 나이: 만 (            )세
3. 학년: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4. 귀하가 주로 성장한 곳은? ①대도시    ②중, 소도시    ③읍, 면 단위
5. 귀하의 출생순위는? ①만이    ②중간    ③막내    ④외동아들 혹은 외동딸
6. 부모님의 연세는? : 아버지(            ) / 어머니(            )  
< 보기: ①30대    ②40대    ③50대    ④60대    ⑤70대 이상 >

7. 부모님의 학력은? : 아버지( ) / 어머니( )

< 보기: ①대학원 졸 ②대학교 졸 ③고등학교 졸 ④중학교 졸  
⑤초등학교 졸 ⑥무학 >

8. 부모님의 결혼관계 상황은?(한 항목만 선택)

①함께 살고 계심 ②별거 중 ③이혼하심 ④한 분 사망 ⑤두 분 모두 사망

9.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10. 귀하의 가족 화목도 수준은?

①매우 화목하다 ②화목하다 ③보통이다 ④화목하지 않다 ⑤매우 화목하지 않다

11. 성장 과정 시 함께 살았던 가족의 형태는? ①대가족 ②핵가족

12. 현재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은?

①100만원 이하 ②101~ 200만원 ③201~300만원 ④301~400만원 ⑤400만원  
이상

-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